

정릉야생

정릉 마을잡지 2020.no.06



정릉아침

정릉 마을잡지
2020.no.06



표지 | 기후 위기를 지구의 눈물로 표현하였다. 폭염, 폭우, 코로나19...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이
1.5도 넘게 오르면,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 파괴가 발생한다고
한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현재 수준으로 탄소를 배출할 경우
불과 7년 뒤면 1.5도에 도달한다고 전망한다. 더 늦출 순
없다. 기후 위기를 멈추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이 절실하다.



지난 11월 21일 성북동 일대에서 진행된 <1.5℃를 지키는 동네방네 기후 행동> 캠페인에 호박이닝쿨책도 참여했다. 녹색연합이 있는 성북동에서부터 한성대입구역 분수마루 광장을 거쳐 성신여대역까지 왕복하며 행진했다.

코로나19로 비상 상황을 맞이한 올해 '기후 위기' 이슈가 뜨겁다. 호박이닝쿨책은 지난 9월 지역단체들과 연합하여 포럼을 함께 진행하였고 『기후위기 정의선언』이라는 책으로 낭독콘서트도 진행했다. 이번호에서도 기후위기와 관련한 글을 만날 수 있다. 기후위기에 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를 바라며, 호박이닝쿨책은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꾸준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후위기에
침묵하는
자들에게
미래는 없다

1.5°C를 지키는
동네방네 기후행동

기후위기 비상행동 climate-strike.kr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성북구 사람들

1.5°C를 지키는 동네방네 기후행동

줄여라 온실가스,
부끄럽다 정부계획!

기후위기 비상행동 climate-strike.kr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성북구 사람들

1.5°C를 지키는 동네방네 기후행동

석탄, 석유, 가스는
10년 내 절반으로

기후위기 비상행동 climate-strike.kr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성북구 사람들

기후는
변하는데
우리는
안 변하나요?

기후위기에
침묵하는
자들에게
미래는 없다

1.5°C를 지키는 동네방네 기후행동

줄여라 온실가스,
부끄럽다 정부계획!

기후위기 비상행동 climate-strike.kr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성북구 사람들



10 들어가는말 편집부

시시콜콜 별일있어 산다

- 14 왕진가방 들고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성북의료사협' 김해경
 20 '스스로 고치는 집'이라는 것 나오늘

스색스색 마음을 스치다

- 29 그림 위를 걷는 고양이처럼 산다 풍요
 33 1호실에 있다 박혜진
 38 보릿고개 1975 함동갑
 42 가을이란 게 있긴 있는가? 최성호
 45 『자기 앞의 생』이 준 위로 오숙현
 49 샌프란시스코에서 전하는 코로나와 나의 일상 이야기 김경화
 54 콩나무 김은순
 57 아티스트 웨이, 나를 찾아가는 길 진솔
 61 직접 연필을 쥐고 종이 노트를 펼쳐보세요 유소정
 64 쓰레기를 따라서 예원
 67 코로나와 함께 춤을 정다운
 72 o와 o II 차정미

소리조리 깊은 타고들다

- 80 시, 우주 그리고 조지훈 김가희
 87 운동 오지라퍼5 결국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임민창
 92 언어 표현에 관하여 권준형
 96 500파운드와 자기만의 방 김해경
 101 재활용만 하면 다 괜찮아질까? 김보람

2020 야책문학

- 107 산중샤워 권남옥
 108 단풍 외 1편 김진태
 110 祖上님 최성호
 111 자화상 임민창
 112 비 외 1편 진솔
 114 내가 온종일 기다리는 시간 조성권
 116 힘 외 1편 이혜성
 118 이별 II 이밥
 128 여행하는 책 명소희



따뜻함이 온전히 전달되길

이미 일상화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팬더믹과 팬더믹의 근본 원인인 기후위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담론과 논쟁이 무성했던 2020년이었다. 그래서 그랬나? '정릉야책 2020 겨울호'에는 유독 20대와 30대 초반 젊은 작가들의 고민과 다짐이 눈에 많이 띈다. 어느 세대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의 시대이니 특히 젊은 세대가 현 시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고민이 깊은 것 같다.

다행히도 '정릉야책 2020 겨울호'의 젊은 작가들은 자신들의 고민을 넘어 길을 잘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 직장을 그만 두고 하고픈 일에 뛰어든 작가도 있고, 이일 저일 부딪혀 보며 치열하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작가도 있으며, 자신의 몸을 소진시키라는 자본의 유혹과 강요를 과감하게 뿌리치고 철학자의 길로 들어선 작가도 있다. 용감하게 길을 나섰기 때문인지, 이들의 글들은 모두 읽는 이에게도 신선한 자극과 용기를 준다.

물론 젊은 작가들의 글들 외에도 이번 호에 실린 글들은 대부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겠다는 의지들을 보여준다. 특히, 성북에 만들어진 '성북의 료사회적협동조합' 활동가를 인터뷰한 내용에서는 자본이 강요하는 길에서 벗어나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활동가들의 따뜻함과 기백을 느낄 수 있다. 새로운 삶의 방식에 도전해볼 이들이라면 꼭 챙겨보길 권한다.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팬더믹 속의 일상을 다룬 글들도 눈에 띈다. 큰 난리가 난 것 같은 미국에서 뉴스의 흔들림과는 달리 소소한 일상을 살아내는 작가와 다리를 다치고 손까지 아픈 상황 속에서 독서와 명상을 통해 일상을 회복해가는 작가의 글은 겉으로 소박하나 우리 내면에 얼마나 큰 힘이 내재돼있는지 확인시켜준다.

특히나 기후위기에 걱정 많았던 한해였다. '정릉야책'의 작가들도 환경과 기후 걱정이 많았던 것 같다. 대나무 빨대를 소재로 기후문제를 상기시

들어가는 말

편집부

켜 준 글과 다큐멘터리 <플라스틱 차이나>의 감상평이 큰 울림을 준다. 재활용을 잘 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버린 쓰레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게 결국 내게 다시 돌아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내 손을 떠난 쓰레기는 다른 누군가를 고통에 빠뜨리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다며 현재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은 또 어떠한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작가들이 우리에게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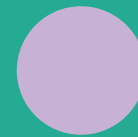
일상화된 집콕 때문이었을까? 이번 호에는 유독 위로와 그리움이 많다. 『자기 앞의 생』 로자 아줌마와 모모를 통해 병중인 어머니를 위로하는 글은 작가 스스로를 위로하며 우리 모두를 함께 위로해준다. 정 많고 속 깊은 머느리가 쓴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읽는 이의 눈물을 쏙 빼놓고, 1970년대 어느 시골마을 어느 가족의 이야기는 가난했던 일상을 아주 유쾌하게 그려낸다.

이번 호에도 여전히 운동오지라퍼는 우리에게 운동을 전도하고, 동네문인들은 여전히 시와 소설을 뽐낸

다. 조지훈 시인에 대한 글을 보면서도 성북의 인물들을 매호 소개하고 있는 작가의 성실함과 치열함에 놀라고, 버지니아 울프와 박경리, 박완서 등 여성문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성들의 일과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기회를 준다.

사람들은 '집콕'했으나 '정릉야책'은 책 하나를 여행 보냈었는데... 이 여행기를 쓴 작가가 다큐감독이며 유치원 다니는 아들을 키우는 엄마여서인지 전문작가의 향이 짙고 그 안의 에너지도 무척 따뜻하다.

'따뜻'이란 단어가 여러 번 쓰였다. 위에 구체적으로 소개했던 글들뿐만 아니라 미처 소개되지 못한 글들 모두 따뜻했기 때문이다. 팬더믹 시대, 우울하고 그래서 건조하기까지 한 시대이다. 그런 시대를 극복해내는 건 인간의 따뜻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겠지? 그래서 글들 모두 따뜻하게 쓰였겠지? '정릉야책 2020 겨울호'를 읽는 분들께도 '정릉야책 2020 겨울호'의 따뜻함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길, 그 따뜻함으로 이 팬더믹의 시대를 잘 극복해나갈 수 있길 바라며 '정릉야책 2020 겨울호'를 내놓는다.



시시콜콜
별일 없이
산다





왕진가방 들고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성북의료사협’ “마을에서 치료와 돌봄을”

인터뷰이 정윤주(성북의료사협 사무국장)

인터뷰어, 정리 김해경

엘리베이터가 없는 노후한 빌라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은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기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이런 분들의 집을 방문해서 진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까지 연계해 주는 마을 주치의 사업을 하는 ‘성북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하 성북의료사협). 명칭도 길고 이름도 다소 생소한 이 사회적협동조합은 ‘마을한의원’을 운영한다. 한의사는 왕진 가방을 들고 의료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는 방문 진료를 한다.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의 주치의 제도처럼 주민의 건강권과 의료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성북의료사협 사무국의 불을 밝히는 정윤주 사무국장을 만났다.

안녕하세요. 아직 ‘성북의료사협’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성북의료사협은 작년에 의료기관인 한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어요. 성북지역에서 어르신 중심의 건강증진 활동을 하며 주민이 스스로 건강권을 찾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어요. 3년 정도 준비해서 보건복지부로 부터 인가를 받았고 현재 조합원은 750여 명으로 대의원 선출을 앞두고 있어요.

예전에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어떻게 ‘성북의료사협’을 하시게 됐는지,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성북의료사협’을 만들기 어려우니 힘을 모으자는 뜻에 동참하게 됐어요. 주민들의 출자금으로 병원을 설립하는 게 쉽지 않았고 더구나 뜻이 맞는 한의사, 간호조무사 등의 의료인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건강에 대한 욕구도 다양각색 달라서 의견을 모으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성북의료사협’ 설립에 참여하게 된 개인적인 동기가 있으신가요?

10여 년 전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투병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종합병원 진료 대기는 1시간인데 반해 진료 시간은 5분 정도로 짧고 공장식 병원 같은 진료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죠. 과잉진료 경험도 있고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의료사협’ 설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됐어요.

한의원하면 침, 부황, 보약 등이 떠오르는데
한의원에 대해 특별한 느낌이 있으셨나요?

저는 쌍화탕이 제일 좋았어요. 일단 으슬으슬할 때 우리 한의원 쌍화탕을 먹으면 일반 약국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진해요. 일단 믿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들죠. 제가 한의원 운영에 관여하다 보니 무슨 약재가 들어오는지 훤히 알거든요.

앞으로 정윤주 선생님이 드시는 거 따라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믿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뭘 드시는지 잘 지켜봐야겠어요. (웃음)
‘성북의료사협’은 한의원 운영 이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첫째,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인데요, 몇 개 동 단위로 ‘주민 건강 리더’를 발굴 양성해서 주민건강 자조 모임을 만들어요. 주민들이 건강을 주제로 지속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동아리 운영을 지원해요. 그런데 코로나 19 때문에 건강 박스를 들고 독거 어르신들을 찾아보는 사업으로 변경됐어요. 구강 키트, 양갱, 치매 예방 워크북 등이 들어 있는 건강 박스는 어르신들에게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둘째, 협치 사업으로 7개 동에서 건강 강좌를 진행해요. 코로나로 인해 열 명 이내의 소수 인원으로 하고 있어요. 그림책으로 정서 지원도하고 연극 놀이도 하고 트로트와 함께하는 율동 및 체조 활동을 통해 치매 예방도 하고 있어요.



셋째,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행정안전부에서 받았는데 ‘의료사협’이 추구하는 내용과 가장 부합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을주치의가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어르신, 장애인 분들의 가정에 방문을 해서 직접 환자의 진맥을 보시고 침도 놓으세요. 환자에게 한방 파스를 드리기도 해요.

성북의료사협은 마을 주치의와 함께 ‘돌봄 리더’도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서 정서 지원을 비롯하여 집안 정리 정돈하는 법 등을 가르쳐 준다. 또한 마을에 필요한 사회복지 욕구를 파악해서 자원을 연계한다. 가령 음식 조리를 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동주민센터 돌봄 SOS 센터의 식사 지원 서비스를 연결해 주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에는 수도, 전 등, 도배, 장판 등의 시설 지원을 연결해준다. 또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기도 한다. 건강 리더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소모임을 이끄는 작업치료사 역할을 하며 돌봄리더는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자원을 연계하는 사회복지사 역할을 한다.

‘성북의료사협’에서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환자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조합원 중에서 방문 진료를 신청한 20대 여성이 있는데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었는데 원장님이 치료해 주신 이후로 잘 넘어지지 않고 끊겼던 생리도 다시 하게 됐다는 분이 기억에 남아요.

한의원엔 진료 받으러 오실 때 한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 드시라고 고구마나 간식거리를 챙겨 오시는 조합원분들이 계세요. 한의원이 사랑방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흐뭇해요.

요즘 매우 바쁘신 것 같은데 성북의료사협에서
집중해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조합원이 750여 명이다 보니 총회를 하기 어려워요. ‘협동조합 기본법’과 ‘성북의료사협’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을 둘 수 있어요. 총조합원 10% 이상을 대의원으로 둘 수 있는데 현재 제1기 대의원 80명을 선출할 예정이에요.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고 사업 운영 활성화에 관심과 참여를 해야 해요. 동 단위 조합원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총회에서 사업계획 승인, 평가와 의결 등의 임무가 있어요.

‘성북의료사협’에서 일하시면서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으신가요?

‘성북의료사협’에 참가한 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 사람 얼굴도 뵈고 조합원 명부를 보면서 이름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누가 아프면 먼저 한의원이 떠올라서 원장님을 소개해 주고 싶어요. ‘성북의료사협’을 하면서 주민들의 건강은 염려하면서 정작 사무국 직원이나 임원, 위원회 안에 있는 환자들을 잘 못 챙기게 돼요. 일단 우리가 건강해야 다른 조합원들 건강도 챙길 수 있는데 우리들 건강을 어떻게 챙길까 하는 생각이 최근에 들었어요. 이제부터는 부모님처럼 주변인들의 건강도 신경 쓰려고요.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의원(은평구)의 추혜인 원장의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환자는 의사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약 부작용이나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한다. 환자로부터 진료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많은 것이 동네 주치의의 장점이라고 한다.

조선 의약론(醫藥論)에서 세조는 의사를 8가지 종류로 나누었다. 가장 뛰어난 의사를 심의(心醫)라고 했는데 이는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병을 낫게 하는 의사를 말한다. 그다음은 식의(食醫)로 병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처방하여 병을 고치는 의사이다. 세 번째로는 약의(藥醫)로 약을 잘 써서 병을 고치는 의사이다. ‘성북의료사협’의 마을 주치의야말로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 관계 속에서 치료하는 진정한 심의(心醫)가 아닐까 생각한다.

성북의료사협의 마을 한의원은 환자를 돌보는 일에서 더 나아가 마을의 독거 어르신이나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서 안부를 물어 주는 친구,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의 강좌와 건강 소모임으로 건강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친구, 건강과 돌봄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치료와 생활의 불편함 까지 챙겨주는 진정한 동네 친구이다.



‘스스로 고치는 집’이라는 것

인터뷰이 적정기술공방 함승호 대표

인터뷰어, 정리 나오늘

국민에게 표준 주택을 공급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자신만의 특별한 집’을 설계하고 만들 자유는 사라졌다. 현대의 전문가가 고안한 방식이 손길을 뽐 치면서 ‘자율적 행위를 위한 조건, 그리고 열망과 능력’은 점차 파괴되어간다. ‘현대화된 가난’은 산업 생산성이 가져다준 풍요에 기대어 살면서 삶의 능력이 잘려 나간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풍요속의 절망이다. 사람들은 창조적으로 살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데 필요한 자유와 능력을 빼앗긴다.

- 누가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가 이반 일리치 -

무더웠던 8월, 우연히 ‘서울시 집수리 아카데미’ 기초반 모집 공고를 보게 되어 아침잠을 설치며 지원했다. 결과, 운 좋게 합격! 단열부터 목공, 전기, 도배, 설비까지. 스스로 집을 고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에 대하여 이론을 배운 후, 협업 실습으로 기술을 익혔다. 수강생들의 열기는 뜨거웠고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다. 9월, 새로 이사 예정인 오래된 집에 실제 집수리를 감행했다. 배운 것들을 모두 사용하는 실전 실습이었다. 선생님들께 조언을 얻고, 지인들의 도움을 받으며 계획부터 공사, 마무리까지... 전부 스스로 해내었다. 몇 번인가 인간의 한계를 넘기도 하는 힘든 과정이었지만 무사히 이사까지 마칠 수 있었다. 10월, 다시 선생님들을 찾아가 한 달간 킁킁거리며 해낸 작업을 사진과 이야기로 나누며 공유하였다. 함께 무척이나 기뻐했다.

삶의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술. 오래 전부터 생활 모든 방면에 있어서 ‘자립기술’을 배우고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던 나로서는, 이번 경험이 그 꿈으로의 첫걸음이 되었다. 사람들은 불과 몇 십 년 전만해도 직접 집을 짓고 먹을 것을 기르고 옷을 지어 입을 수 있었다. 그것은 당연한 자립기술이자 인류의 축적된 지혜였다. 하지만 어



느릿 “전등을 달고, 페인트를 칠하고, 장판도 제가 깔았어요.”라고 하면 모두를 놀래게 만드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11월, 선생님들, 즉 ‘적정기술공방’의 철학이 나의 생각과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 더 알고 싶은 마음에 인터뷰를 청했다. 집과 자립기술에 대한 철학,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나아가야 할 건축과 문화에 대한 생각, 또 이 길로 걸어 오시게 된 개인적 발걸음에 대해... 3시간이 넘었던 긴 이야기가 소중해 살며시 이곳에 나누어 본다.

적정기술공방 함승호 대표 :

‘적정기술공방’의 현재 중점 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집수리 기술 교육’이에요. 은평구, 성북구를 시작으로 현재는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확장하여 교육하고 있죠.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데 인기가 워낙 좋아 경쟁이 치열해요. 그만큼 사람들의 집수리에 대한 답답함과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죠. 보통 3분 안에 마감이 되어버리곤 하는데, 나 작가님 이번에 정말 운이 좋으셨네요!

저희는 난방기술과 생태건축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시작해 전국 곳곳을 돌며 기술공유 교육과 포럼, 시공을 진행해왔고, 집짓기 교육, 귀농 귀

촌을 위한 생활기술 교육 등 다양한 활동들도 계속 함께 추진해오고 있어요. ‘적정기술’이란 말 그대로 적절한 기술, 자신이 마주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쉽고 보편화된 기술을 말하죠. 사람들이 단순히 소비자로서 시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기술을 익혀 주체성과 자신감,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을 위해 전문기술을 연구해 ‘적정기술’로 개발한 후 교육을 통해 보급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죠.

재미있는 것은 사실 제가 처음부터 적정기술이나 생태건축에 큰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죠.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기업에 취업하는 친구들과는 달리 저는 작더라도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처음 시작한 것은 제조업이었어요. 통신관련 기기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아주 작게 시작해서 꽤 큰 규모까지 성장했죠. 그러다 제조업의 한계를 느끼고 나서는 국내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할랄음식 무역과 유통 사업을 했죠. 이 사업 또한 승승장구했어요. 믿기지 않을 만큼 운이 따라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었죠. 하지만, 바로 IMF 위기가 닥쳤고 모든 재산은 한순간에 거품처럼 사라졌어요. 다행이었는데 아닌지는 몰라도 빚 없이 아주 약간의 자본만이 남았죠. 거기서 멈출 수는 없었어요. 다시 재기를 꿈꾸며 PC방 체인 사업, 대형 음식점 사업으로 계속 이어나갔어요.

적정기술 이야기를 듣고자 찾아왔는데, 통 사업이야기만 하니 의아하죠? 전혀 예상치 못하셨을 전개일거라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길게 서두에 한 이유는 삶의 아주 큰 전환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매일 사업을 확장시키고 최고가 되기 위해 앞으로만 나아가던 어느 날, 몸에 이상신호가 왔어요. 그것도 급브레이크가 필요했던 것인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말았죠.

그 후 3년은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지금의 방향에 서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온 힘을 다해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내 몸의



소중함을 간절히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건강한 삶, 잘 사는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게 되었어요. 피나는 노력 끝에 1년 반 만에 어느 정도 잃었던 신경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 후에 저는 바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은 재산으로 시골에 아주 작은 땅을 사서 컨테이너 하나만 두고 ‘건강한 삶’을 위한 실험을 시작했어요. ‘자립하여 삶을 유지하는데 과연 얼마의 비용이 들 것인가?’도 확인하고 싶었고요. 살아보니 월 60만원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아주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곳에서 다시 1년 반을 머물면서 건강한 자립생활을 위한 농업, 생활기술들을 공부하고 직접 실험하며 익혀나갔죠. 그 중 특히 난방기술과 생태건축기술에 가장 큰 관심이 갔고 관련된 모든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정의웅 선생님은 그 당시 한옥, 경량목구조 등 건축기술을 익히고 있던 터라 그 후로 우리는 본격적으로 난방기술과 생태건축을 연구해 나갔어요. 전국의 현장과 기술자를 찾아다니고 배우고 교류했죠. 그런데 기술이란 것의 특성상 공유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기 쉽지 않은 점이 아쉽더라고요. 전국의 생태건축 기술자들은 제각기 다른 방식대

로 집을 짓고 있었어요. 각자의 장점과 아이디어를 더해 발전시키면 전체 기술력이 향상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 기술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빌더들의 수도>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예비 건축주들도 초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건축 기술자와 자연스러운 연결이 될 수 있는 역할도 하고요, 현재까지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교육을 한다는 것은 다소 힘든 일이긴 했지만 정말 즐거웠어요. 이전 사업들과 가장 다른 점이라면, ‘공유’가 아닐까 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과 배움을 얻었죠. 그래서 저희가 모으고 개발한 기술 역시 모두 공유를 원칙으로 공개하고 있어요. 필요한 누구든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고 더 멋진 아이디어를 보태서 발전시키고 다시 모두에게 나누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난방과 건축에 집중하게 된 이유는, 귀농 귀촌할 때 실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그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버튼만 누르면 난방이 되는 도시생활에서는 에너지의 소중함을 느끼기 어렵죠. 도시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순간 바로 에너지와 난방 문제가 가장 큰 해결과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이용,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반드시 요구되죠. 이는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도 우리가 꼭 변화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도시의 한 사람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과 손실로 사라져버리는 열 문제를 지금처럼 지속하면서 인류의 삶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도한 에너지 사용이 불러오는 환경 파괴와 사회적 불균형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가장 적은 자원으로 열사용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안적인 난방 및 건축기술을 공유하고, 건축 문화와 시민 의식을 하루빨리 변화시켜야 합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기술인 ‘구들’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난방기술인 ‘구들’ 즉, 바닥 난방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 점은 무척이나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열 효율성 면에서 아쉬운 점도 있기에 저희는 수년간 연구와 기술 공유를 통해 서양식 난방기술인 벽난로의 이점을 접목하여 새로운 난방 시스템을 개발해냈습니다. ‘벽난로 구들’이라고 할까요? 연소실은 아주 작게, 집 내부에 만들어 열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 열이 벽난로 내부에서 회전한 후 바닥 아래 구들을 통과해 반대편 굴뚝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동선을 길게 이동하며 축열될 수 있도록 만들어 열 이용률을 극대화시킨 난방 기술입니다. 아주 적은 나무만을 이용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죠. 아마 이 기술은 우리가 최초로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어요. 누구나 적용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으니 이 난방기술을 도입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수년간 전국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교육하였는데, 결국 도시라는 과제가

남더라고요. 정작 위 기술은 현재 도시 주택환경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으니까요. 또한 오래된 도시의 주택들은 단열과 노후화 문제에 있어서 더욱 취약하고 열악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 하고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 해결책을 ‘주민 집수리 교육’에서 찾았습니다. 각각의 주민들이 주체적인 기술자가 되어 자신의 집을 보완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면 에너지 및 사회적 비용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또한 의미 있는 것은 획일적인 시공에서 벗어나 각자 창의적인 디자인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교육을 이수한 시민들과 함께 ‘집수리 봉사단’을 만들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경험도 쌓는 기회가 될 수 있는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목표로 만들어내고 싶은 것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집수리를 필요로 하는 주민 4-5인이 모여 품앗이를 하여 서로의 집을 같이 돌아가며 도와 고치는 문화입니다. 기술과 지식을 가진 전문 인력이 파견되어 도움을 주는 형태로 지원하면 충분히 좋은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선량한 기술자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 이수자들 가운데 실제 직업적 목표를 가진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저희의 경험과 지식을 더해 이분들을 양성하여 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집수리 시공단체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자생할 수 있도록 키워내고 돕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스스로 자신의 주거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립기술을 기르게 돕는 것, 공유와 협력이라는 도구를 통해 공동체 건축 문화를 되살리는 것, 그것이 저희가 나아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방향입니다. 나 작가님, 첫 수업 때 칠판에 적어놓았던 이 한 마디 기억하시죠? <기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그럼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우리 심화반 교육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림 위를 걷는 고양이처럼 산다

풍요



스삭스삭
스치다 마음을



고양이 한 마리가 창가에 앉아 있고 그 모습을 넋 놓고 바라본다. 폭신한 의자에 기대앉아 시원한 바닐라 라테를 마시며 잔잔한 음악을 듣는다. 작년 이맘때에는 사무실에 앉아 있거나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니면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었으려나. 여하튼 지금 나는 카페에 앉아 글을 쓰고 있다.

약 7여 년간의 직장 생활. 그 모든 순간이 차곡차곡 기록되어 머릿속에 남아 있다. 가끔 기억을 서랍 속에서 꺼내 들춰보면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버텼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스스로 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절. ‘나답게’ 일하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던 그때. 지나고 보면 답은 늘 정해져 있었는데도 힘들게 돌아 돌아 길을 찾아왔다.

작년 이맘때 나는 정릉도서관에 앉아 있었다. 정릉 지역 마을 주민들이 주제에 맞는 토론을 진행하는 행사인 ‘2019 정릉 마을 in 수다’에 패널로 참여했다. 일과 삶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던 내게 찾아온 소중한 기회였다. 인생 선·후배들이 모여 서로의 생각을 가감 없이 나누는 자리였다. 나다운 일에 대한 작은 실마리를 찾기 위해 열 일 마다

치 않고 참여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자리를 채웠다. 토론도 원활하게 이뤄졌다. 회사라는 획일화된 틀을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는 작가님이 강연을 진행했다. 부럽기만 한 그 삶을 과연 나도 살아갈 수 있을까? 먼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토론이 고조될 무렵 나는 일에 대한 나의 고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회사에서의 저는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고, 일에 대한 흥미도 떨어져 갑니다. 저는 아직 명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을 그만두는 건 너무 생각 없는 일일까요?”

라고 질문했고, 다양한 연령대 참여자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정성스러운 답변들, 모두의 이야기가 내게 도움이 됐다. 나이가 어림에도 확신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었고, 이미 오랫동안 마을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었다. 그중 한 분이 큰 목소리로 조언을 해주셨다. 직장 관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시간만 늦어진다고. 단호한 어투였지만, 이때 깨달았다. 내가 하고 싶고, 듣고 싶은 말이 이거구나.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

“내 길을 가라.” 였다.

값진 시간을 보낸 정릉 마을 in 수다 행사가 파하고, ‘정릉야책’ 한 권을 선물 받았다. 마을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 직접 글을 쓰고 다듬어서 만든 보물. 소중하게 간직하며 글과 사진들을 눈에 아로새겼다. 그날 겪은 멋진 경험을 내 삶에 녹여보겠다고 생각하며 작년 12월 나는 회사를 그만뒀다. 물론 전될 수 없을 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지만, 이때 뇌리를 스쳐 간 저 한마디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다.



그리고 9개월, 나는 잘 지내고 있으며 이제 작년만큼 힘들지 않다. 언니와 함께 공방을 운영하며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 가족과 함께 내 삶의 이정표를 찍어가며 한 발짝씩 내디디고 있다. 훨씬 혼란스러운 나날이지만 두 눈은 더욱 반짝인다. 머릿속이 맑고 마음은 빛이 가득하다. ‘정릉야책’의 원고를 작성하는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값진 이 시간도 작년의 소중한 경험이 있었기에 빛날 수 있는 것 같다. 정릉에는 힘든 순간 손을 내밀어 주는 좋은 이웃과 내 이야기를 맘껏 펼칠 수 있는 마을 잡지가 있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있을까? 이 충만한 경험과 순간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어졌다. 앞으로 펼쳐질 ‘나답게’ 살아가는 길을 위한 출발점을 정릉 야책과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다. 그림 위를 걷는 고양이처럼 매 순간 자유롭게 나만의 캔버스 위를 뛰놀기 위해 오늘도 나는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다.

글을 써보려고 했다. 어머님 얘기 빼고 쓸 만한 얘기가 없나 계속 찾아봤다. 없다. 머릿속이 온통 그 생각뿐이니 있어도 없다.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신지 5~6년 된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80세 되시면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혼자 못 가시고 식사를 스스로 못 챙겨 드시면서 그리되신 것 같다. 그렇다고 80세 이후가 암울하고 쓸쓸하시기만 했던 건 아니다. 돌이켜 보면 자식보다 살가운 좋은 인연도 많았다. 꼬박꼬박 문안 인사드리고 손발에 로션 문질러 줘가며 애교 반 섞어 서투른 한국말을 하시던 1호실 여사님들이 떠오른다.

“어머님, 오늘 꽃처럼 예쁘시네. 아들 얼굴 보니 그리 좋으세요?”

“어머님, 노래 참 좋아하신다. 이거 유튜브 안 틀어드리면 밥을 잘 안 잡썰요~”

해도 안 해도 그만인 말들을 종일 떠들어대며 어머님 눈을 마주치시던 모습이 선하다. 말 걸어드리는 일이 최고의 배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밝고 아름다운 얼굴들이었다.

한쪽에 마비가 오는 바람에 어머님이 갑자기 구급차에 오르실 때도 여사님이 울고불고하시는 통에 며칠 있다 다시 그 자리로 모셔 가는 길이 너무 뿌듯했었다. 못 오실까 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걱정하셨다며 또 한바탕 울며 기뻐하시는 모습에 그 어느 자식보다 진심이 느껴졌다. 이리 정을 나누면 친구요, 가족이지 싶었다.

내 이름은 며느리

어머님께 내 이름은 그저 며느리다. 집 근처 공기 좋은 산중에 대리석이 깔린 요양원에 모시는 걸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요양원을 교회 삼아 일요일마다 쉬고 싶은 아들을 모시고 꾸역꾸역 가서 어머님을 뵈었다. 물론 나중에는 어머님이 눈에 밝히는 아들이 일요일이면 부산을 떨며 나를 재촉했다.

“왔어~? 일요일이지~? 우리 착한 막내며느리~” 느릿느릿하시던 말씀이 바로 그 뜻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혼자 찾아뵈라치면 ‘너 말고 내 아들~’ 하는 줄, 나는 진즉 눈치챘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막내아들과의 시간이 가장 행복하셨을 어머니시다.

어머님의 정안수

어머님의 요양원 생활 이전의 하루는 늘 정안수로 시작되었다. 까만 새벽에 일어나 깨끗한 물을 시골 부엌 뒷마당에 떠 놓으시고 향을 피우고 늘 염불을 외셨다. 자식들 잘되라는 내용뿐이었지만 육 남매에 손주들까지 차례로 기도하시려면 한 시간은 족히 찬 바닥에서 목이 쉬어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다. 자식들 사는 집 주소를 기도 속에 넣어 외우시며 자식 보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푸셨다. 때마다 절에 소원등을 달고 부적을 보내시고 어머님의 시간을 온통 그렇게 채우셨다.

어머님은 요양원에 들어오실 때 다니시던 절에 가서 큰 기도를 올리시고 ‘정안수 생활’을 정리하셨다. 높은 천장에 대리석이 깔린 으리으리한 요양원에 들어오시면서도 이 중 침대 한 칸이 내 집이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새벽 기도는커녕 내 맘대로 한걸음 가기도 어렵겠구나 하고 체념하신 것 같았다.

어머님의 실크차

어머님이 유일하게 단장하시는 시간은 “실크차 가져와라~” 하실 때였다. 어머님은 애초부터 생소한 휠체어가 실크차로 들리셨던 거다.

“오늘은 햇빛이 금빛이여!”, “오늘은 외제 먼지가 날아 오는구먼!”

날씨 얘기를 시작으로 옛장수 하던 이야기, 수박 농사짓던 이야기, 예전에 송아지 받아내던 이야기, 시골 친척들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리고 아무리 “애 이름은 구글이에요~” 해도 “빨빠리 왔어?” 하시며 강아지를 끌어안고 간식 주시는 시간을 아주 좋아하셨다. 애초에 생소한 구글이라는 이름이 빨빠리로 들리셨던 거다, 평생을 농사일에 짐승 키우는 일을 하셔서인지 강아지 온기에도 행복한 미소를 한껏 지으셨다.

자식들이 찾아뵙지 못하는 주중에는 어머니를 찾아와 기도해 주시는 교회 분들과 덕담을 나누며 무료한 요양원 생활을 버텨 내셨다. 어머니는 덕담을 입에 달고 생활하시는 분이라, 교회 분들이 염불이 아닌 ‘아멘 기도’를 해주셔도 늘 “복 받으세유~”로 끝을 맺으셨을 것이다. 자원봉사를 온 여학생들이 어머니를 주물러 드리고 머리에 꽃핀을 꽂아 드리고 손톱에 분홍 칠을 해 줘도 “복 받으세유~”로 마무리하셨을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몇 년의 요양원 생활 동안 어머니는 교회 분들과 가족처럼 지내시며 ‘세례’도 받으셨다. 막내며느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평소 애에 맘에 들지 않으셨던 어머니는, 씩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막내아들에게 ‘세례’라는 걸 받아도 되나 허락을 받으셨다.

요양원 1호실

코로나로 인해 가족들 면회가 제한되었던 지난 3월 이후 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1호실 여사님들이 우리 대신 가족처럼 잘 챙겨주셨을 건 믿는다. 그래서 더욱, 여사님들이 내 마지막 가는 길 가족이구나 하고 체념하셨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어머니는 가짜 가족들 틈에서 주무시다 홀로 요양원 생활을 마감하셨다.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한 게 마음이 아프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에 마음이 저리다. 찾아뵙지 못하는 동안 마음으로라도 어머니께 더 집중했다면...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몸은 같이 있지 못하더라도 온전히 어머니

를 위해 목이 쉬도록 기도했어야 했다. 어머니가 계시는 ‘요양원 1호실’ 주소를 외며 기도했어야 옳다.

기어이 장례를 치렀다. 자식 농사를 잘 지으신 덕에 문상객이 머물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족들이 많았다. 머릿수를 세며 나도 모르게 ‘일 년에 두 번씩만 찾아오시지, 그럼 한 주도 어머니 곁이 안 비었겠구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 여든 살 이전의 어머니만 기억하는 자식들은 세례를 받으신 줄도 모르고 제를 끊임없이 지내고 이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향냄새 가득한 절에 모시게 되었다며 안도했다. 긴 장례를 끝내고, 극락세계로 가실 수 있게 아침저녁 기도하라는 기도문을 가족 카톡방에서 전달받았다. 그냥 암호 같은 기도문이었다. 어머니는 매일 신세벽에 일어나 육 남매에 손주들까지 주소를 줄줄 외며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어머니를 위한 기도문에는 그 흔한 주소 하나가 없었다.

에필로그

어머니가 힘 있는 목소리였을 때 자식들에게 영상 통화를 하며 늘 그러셨다.

“나 죽고 부산들 떨지 말고 엄마 얼굴 보러 한번 와라. 너 알고 나 알 때 한 번이라도 보는 게 효도지, 나 죽으면 아무리 와도 소용없을게. 나 1호실에 있다~”

1950년에서 60년대까지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다고 한다. 나도 들은 얘기지만 6·25 전쟁 이후 황폐해진 땅과 오늘날같이 제대로 된 시설물이나 농기구 등이 없어서 식량 수확이 적었다고 한다. 그래서 수확한 식량으로는 겨우 그해 겨울까지는 버티지만 새봄이 오면 먹을 식량이 떨어져서 여름에 수확하기 위해 씨를 뿌려 놓았던 보리 새싹을 뿌리까지 캐서 커다란 가마솥에 죽을 쑀어 가족들이 잠시나마 허기를 잊었다는 것이다. 요즘은 삶이 넉넉해져서 보리 새싹을 건강식으로 먹지만 식량이 없어서 몇 뿌리 안 되는 보리 싹을 넣고 많은 물을 부어 그 죽으로 허기를 잊었다면 그 고생을 알 만하다. 그것이 보릿고개다.

1975년 이른 봄 어느 날이었다. 아직은 어장을 시작하지 않는 이른 봄이어서 아빠는 배 수리를 하러 가고, 엄마는 동태를 팔러 나갔다. 엄마가 없는 가정일은 모두 큰누나의 몫이었다. 당시는 수도가 없는 시기여서 집집마다 커다란 물 항아리가 여럿씩 있었는데, 우물에서 양동이에 물을 받아 머리에 이고 집을 왕복하며 그 물 항아리를 채우는 것도 큰 일중의 하나였다.

큰누나는 새골배기라고 불리던 동네의 자연 공동우물에 물을 길러 나갔고, 형과 나는 작은 누나에게 글씨 공부를 배우고 있었다.

그렇게 오전이 다 가고 물 항아리를 모두 채운 큰누나가 허기진 듯 광(창고)으로 갔다가 오더니, 한숨을 내쉬고는 배를 채우려는 듯 바가지로 물을 떠서 마셨다. 광에 수숫대로 엮은 저장고의 바닥에는 고작 썩은 고구마 몇 알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다. 한참을 우두커니 앉아있던 큰누나가 측은하게 우리를 바라보더니 작은누나에게 물었다.

“숙아, 우리 보리 볶아 먹을까?”

“엄마 알른 맞어 죽는디?”

“한 그릇만 퍼내고 다시 판판하게 해놓으면 되야”

말하자면 한 그릇 퍼내고 난 다음 떨어진 흔적을 손으로 다듬어서 편평하게 해 놓으면 감쪽같다는 얘기였다. 작은누나는 기가 막힌 방법이라는 듯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큰누나는 엄마의 절대적 영역인 보리 향아리로 향했다.

우리 4남매는 누가 말할 것도 없이 각자의 임무를 진행해 갔다. 작은누나는 콩깍지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형과 나는 텃밭 옆에 쌓아 놓은 땔감 나무를 가져와서 작은누나가 불을 지피는 것을 도왔다. 아궁이에 불이 단단히 피어오르며 무쇠 가마솥을 달구는 무렵 한 그릇을 퍼내고 완벽하게 증거인멸에 성공한 큰누나가 보리를 가져와 솥에 넣고 커다란 나무 주걱으로 젓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들에 보리가 누렇게 익으면 몰래 따서 낙엽이나 솔방울 등을 태워 간식으로 구워 먹기도 했었다. 물론 어른들이 보면 혼날까 봐 모두 팽개치고 줄행랑을 하는 것이 다반사였지만.

엄마가 저장해 놓은 보리는 요즘 시중에서 판매되는 보리가 아니라 집집마다 식량용으로 밭에서 직접 키워서 껍질만 벗겨낸 통보리로, 가마솥에 볶으면 구수한 맛과 바삭한 식감이 당시의 간식으로는 최고였다.

솥에서 보리가 노릇노릇 익자 우리 4남매는 사이좋게 나눠 먹었다. 포만감에는 한참을 못 미쳤지만 행복했다.

“엄마한테 절대 보리 안 볶아 먹었다 해라이?”

아빠의 회초리는 며칠에 걸치는 엄마의 채벌에 비하면 새 발의 피였다. 어떨 땐 보름까지도 계속되는…. 그야말로 엄마가 한 번 화가 나면 대재앙이었다. 그래서 엄마가 알더라도 목숨 걸고 시치미를 떼라는 얘기였다. 엄마가 알면 그렇게 혼쫓나는 것을 모두가 알기에 큰누나

의 말에 우리 3남매는 굳은 약속의 눈길을 나누었다.

늪녘녘 해가 저물고, 녹초가 된 엄마가 다 팔린 생선 대야와 한 손에는 조그마한 보따리 - 당시에는 쇼핑 봉지가 없었다. - 를 들고 돌아왔다. 보따리에는 소위 개떡이라고 일컫는 쑥과 밀가루를 버무려서 찐 떡이 들어 있었다. 우리 4남매는 도둑이 제 발 저리듯 엄마의 눈치를 보며 개떡을 먹기 시작했다. 엄마는 힘든 것도 잊고 잘 먹는 새끼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한참 동안 잘 먹던 작은 누나가 불쑥 큰일을 그르치고 말았다.

“엄마, 우리 절대 보리 안 볶아 먹었어.”

가
을
이
란

게

있
긴

있
는
가
?

최
성
호

가을이란 게 있긴 있는가? 집에서 나와 걸었다. 미아리고개 고가다리 위에서 남산너머 하늘까지 선명한 하늘이 보였다. 노란 은행잎을 쓸다 짜증이 잔뜩 난 25시 점원은 영화 <25시>의 안소니 퀸의 우는 듯 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혼잣말을 뱉는다. 가을도 있어야 가을이지... 빗자루를 들고 보도블럭을 쓸어도 쓴 것 같지 않은 가을을 쓸고 있었다.

아 참았어야 했는데... 거기서 눈물을 보여주고 말았다.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고 바람을 보았다고 하듯 지금 나의 가을은 슬픔과 어울리는 눈물자국이다. 아마 점원은 나처럼 속으로 가을을 삼키고 있을 것이다.

개운산 입구 인도 가장자리에 바람에 몰려 나뭇잎이 쌓였다. 발 밑에서 바스락 거린다. 가을이었다! 얇은 개운산은 아담하고 친근한 모습이다. 마치 집안에 놓아둔 수석처럼 오밀조밀하게 있을 것 다 갖춘 모습이다.

생각전대 개발 전 미아리 눈물고개의 정상은 구름도 쉬어갈 만큼 높았으리라. 산속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걷는다. 벗고 걸으면 마주오던 행인의 눈총을 받고 나도 겹연쩍어진다.

개운산 끝자락 종암동과 안암동 경계선을 개운산로가 구분한다. 고대 후문은 법정대 건물이 있는 곳이다. 석조건물이 아기자기하게 그리고 다소 위엄 있게 서 있다. 대학 교정에는 어느 절에서 가져왔는지 모를 오래된 석탑과 누구의 무덤을 지켜야 할 문인석이 있다.

맞은편에는 조선유학의 시초를 강의한 고려대가 배출한 1호 박사님이라는 황금들판 빛 홍상이 웃고 있었다. 유학은 예를 중시하는데 법과 원칙을 학문으로 탐구하는 곳에서 이율배반적인 풍경을 보는 듯

했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졸업사진을 찍느라 웃고들 있었다. 가을이었다. 한 해의 끝자락인 것이다.

홍파초교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자 한약냄새가 풍겨왔다. 건강해질 것 같아 깊은 숨을 쉬었다. 가을 냄새를 맡았다. 구수한 고향마을 입구에 선듯 하였다. 잔기침이 잦았던 외할배의 노루모산 가루약이 떠오른다. 누구에게라도 전화를 걸고 싶어졌다. 하늘을 보았다. 도심의 하늘이 높았다. 가을 천고는 확실하다.

“아니예요.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로자 아줌마는 유대인 동굴에 있어요.”(307쪽)

로자 아줌마는 열네 살 소년 모모를 키운 유대인이다. 그녀는 독일인들에 의해 유대인수용소 생활을 했었고, 몸을 파는 직업을 그만둔 후 빈민구제소가 아닌 가정에서 양육되기를 바라는 창녀들의 아이들을 ‘은밀한 집’이라 불린 자신의 집에서 몰래 키운다. 15년 이상 수많은 아이들이 로자 아줌마의 손에 맡겨 키워졌지만 모모만이 그녀의 임종을 지킨다. 로자 아줌마는 95kg의 몸을 끌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7층에서 지하 1층으로 급히 내려가곤 했다. 그곳이 유대인 동굴(유대인 동지)이다.

“그곳은 내가 무서울 때 숨는 곳이야.”(72쪽)

아줌마를 이유 없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위안을 주는 곳. 모모도 뒤따라 가서 알게 된 곳이다. 낮에도 캄캄하고 먼지투성이며, 더럽고 망가지고 낡아빠진 서랍장, 침대, 이불, 베개, 감자 자루 몇 개, 버너, 양철통들, 정어리 깡통이 잔뜩 든 상자, 가지가 여러 개 달린 유대식 쉼대, 빗자루가 있는 곳.

로자 아줌마는 매월 아이들을 돌보는 값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일곱 살 때 모모는 생애 최초의 커다란 슬픔을 맛본다. 로자 아줌마는 슬픔에 빠진 모모를 위로하기 위해 모모를 무릎에 앉혀놓고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라고 몇 번이나 맹세한다.

로자 아줌마에게 자연의 법칙에 따른 변화가 일어난다. 다리, 눈, 심장, 간, 신장, 동맥 따위의 기관들이 고장을 일으키고, 오래 산 사람들에게 보이는 여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칠 층까지 오르기 힘들게 되었고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해 시장에 가지 못한다. 머리카락은 빠져서 서른두 가닥. 카츠 선생님(의사)은 로자 아줌마에게 여러 사람 몫의 병을 다 갖고 있어서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 아줌마는 정신이 나

간 상태가 점점 길어져서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어린애들과 사는 병든 로자 아줌마를 위해 이웃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아줌마를 돕는다. 음식을 가져다주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깨끗이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몸을 들어 옮겨 건물 밖으로 외출하게 해주고, 쇠약해진 의사가 칠층으로 왕진을 수 있도록 들어 나르고, 병을 물리치는 아프리카의 의식을 행해주기도 하고, 악기를 연주하거나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주었다.

모모는 병든 노파의 정신 나간 행동을 볼 때 견딜 수 없어 집을 뛰쳐나가 부랑자처럼 동네를 돌아다니거나 상상의 세계에 빠지거나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만 홀로 병중에 시달리는 로자 아줌마를 걱정하며 집으로 돌아가곤 한다. 모모는 어느 날 자신의 나이가 열 살이 아니라 열네 살임을 알게 되고 혼란스러워하지만 그 이유는 모모를 향한 로자 아줌마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임을 알게 된다.

제 나이를 되찾은 모모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기 나이에 맞게 더 성숙해진다. 그런 이유로 로자 아줌마의 소원 하나를 마침내 이루어주게 되는데 그 소원은 노인의 안락사를 금지하는 법으로 인해 병원에서 식물인간으로 사느니 노쇠한 몸과 정신을 가진 채 유대인 동굴에서 편히 죽을 수 있게 해준 것이다.

병원에 입원이 예정되고 아파트 관리인이 빌린 집세를 받으러 오기 전날 밤에 모모는 집을 떠나 로자 아줌마가 유대인 동굴에 가도록 돕고 유대인 기도를 함께 드린다. 로자 아줌마가 마비상태에 이른 후에는 화장과 향수 등으로 씩어가는 얼굴을 감추고 냄새를 없애려고 노력한다. 모모 자신은 사람들에게 발견되기 전까지 시신과 함께 삼 주간 지하방에서 먹지 못한 채 누워 지낸다.

코
로
나
와
나
의
일
상
이
야
기

샌
프
란
시
스
코
에
서
전
하
는

김
경
화

『자기 앞의 생』을 읽는 시간 동안 자연이 내린 인간의 노화와 질병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두렵기까지 한 인간의 노쇠과정을 지켜보고 돌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특히 내 마음에 와 닿았다. 왜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친정어머니가 투병 중이시기 때문이다. 과연 이다음에는 어떻게 더 나빠질 것인가를 지켜봐야 하는 가족이 된 심정과 생활을 아마 모모는 나보다 먼저 겪어 잘 알 것이다.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한 어린 소년에게 존경을 보내며 위로를 받는다. 너는 해냈구나. 그 어려운 일을.

처음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뉴스를 접했을 때 그저 감기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거니 했다. 하지만 코로나는 전 세계로 확산되어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키고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에 해당하는 팬데믹이 선포되면서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에 이르렀다. 아들의 생일날인 3월 17일 즈음 팬데믹이 선포되어 올해는 학교 친구들과 게임을 하는 장소를 빌려서 파티를 하고 싶다고 했던 아들의 소원도 들어줄 수 없게 되었다. 파티룸을 빌리는 것도 학교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가까운 한국 친구들 몇 명만 초대해 집에서 피자랑 치킨을 시켜 먹으며 간단하게 11살 생일을 축하해 주어야만 했다. 평소애 가족 같이 지낸 친구들과 나는 '운명 공동체'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하며 팬데믹으로 격리가 되어도 서로 왕래하며 지내자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하지만 그 후로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서 전해주는 사회적 분위기는 아들의 조출한 생일파티가 어찌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아이들 학교가 문을 닫고, 수십 통의 이메일이 오가며 남은 학기 두 달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들과 통지가 오고갔다. 중학생이 된 딸은 구글과 온라인 수업에 빠르게 적응했지만, 초등학교 5학년 졸업을 앞둔 아들은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도, 선생님이 숙제를 알려주는 구글 클래스 사용도 익숙하지 않아 답임과 내가 소통하며 도와주어야 수업 진행이 가능했다. 삼시 세끼 밥과 간식에, 아이들 숙제나 학원 수업 준비까지 도와주어야 하고, 거기에 원래 애들 학교 보내고 오전에 하던 일도 조금씩 계속해야 하는 내 생활이 조금 버거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일명 삼식이라고 불리며 집에서 삼시 세끼 밥을 먹는 남편이라는 존재가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

평소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남편의 성격이 무뎠

하고 크게 나를 성가시게 하는 점이 없기에 초반에는 집에서 온종일 남편과 함께 지내는 것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다. 그것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틈만 나면 안하던 잔소리를 아이들에게 하기 시작했다. 애들은 원래 저랬는데, 온종일 나가 있어서 못 보던 걸 매일 보게 된 남편은 점점 시어머니 같아지기 시작했다. 친구도 학교도 선생님도 모든 사회와의 직접적인 연결이 단절되어 버린 현 상황에서 아빠의 잔소리까지 감당해야만 하는 아이들이 그저 안쓰러울 따름이다. 특히 친구들과 뛰어노는 걸 좋아하는 우리 아들, 맘 같아선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이나 실컷 하게 내버려 두고 싶기도 하다.

단톡방의 몇몇 엄마들은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를 뉴스들을 퍼다 나르고 그중에 겁도 많고 걱정도 많은 한 엄마의 걱정거리에 서로 또 다른 뉴스를 보태고 난 그걸 지켜보면서 호들갑스럽다고 콧방귀를 끼면서 어느새 나 또한 거기에 동참하고 있었다. 도대체 휴지는 왜들 그렇게 사는 건지... 하이웨이 운행을 못 하는 나를 위해 남편이 장거리 운전을 도와주기 때문에 사재기는 원래 내 일상이었다. 그래서 휴지사재기 같은 거로 난리가 났을 때도 이미 몇 주 전에 한국마켓이며 대형할인점을 다니면서 이 삼 개월분 장을 본 게 쌓여있어 우리 가족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팬데믹 상황을 맞이했다. 점점 장 보러 가는데 규제가 생기고 물건이 없다는 주변의 이야기들에 딱히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결국 나도 혼자 쿨한 척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비어있는 팬츄리는 채워야겠다는 생각에 인터넷 주문으로 시리얼, 캔 푸드, 파스타나 밀가루 등 저장식품류 등을 주문했고 다행히도 배송이 늦어지거나 폭주 되기 전에 물건들을 다 받을 수 있었다.

결국 마켓은 마스크를 쓰고 줄을 서서 들어간다는 게 확실시되었고, 디즈니 랜드나 유니버셜 스튜디오 외에는 유명식당에서도 줄서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우리는 사람들이 몰리는 대형 마트 대신 동네에 인기 없던 마켓을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면서 우유랑 달걀을 받을 수 있었다. 로컬마켓을 이용하지 굳이 대형마트를 다니면서 도대체 왜 들 그 난리들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집 밖을 나가야 하는 두려움이나 걱정보다는 내 일상에 찾아온 불편함으로 인한 짜증과 귀찮음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가능한 접촉을 피하려고 모든 것에서 배달 서비스를 전보다도 많이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작년부터 이미 아마존 홀푸드 마켓 배달을 애용하던 나에게 더 이상 배달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CDC(질병통제센터) 권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란다. 이미 모든 가게나 식당들은 문을 닫았지만 문을 닫을 수 없는 생필품을 판매하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권하지만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는 한 미국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감기가 유행하는 겨울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은 동양인 몇 명 정도에 불과할 뿐이다. 내 아이들도 마스크를 쓴 적이 없다. 하지만 곧 법이 시행되었고, 법적 규제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말한다.

미국뉴스는 한국과 중국 상황을 무섭게 보도하고 한국뉴스는 미국에서 하루에 몇 명씩 죽어 나가는지 보도하나보다. 한국 부모님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셔서 근심 걱정이 크시다. 뉴스는 큰 도시에 집중되었고 샌프란시스코 변두리에 자리 잡은 우리 동네는 워낙 조용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기도 어렵다. 이곳의 지리적 상황이나 미국의 의료시스템 또는 정책을 알 리가 없는 어른들이나 한국 사는 친구들은 미국서 어떻게 사냐고 걱정을 한다. 뉴스에서 방송된 개인주의적인 사재기 현상들과 민영화된 아주 쓸모없는 미국 의료시스

템과 병원들의 현실은 모두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은 팬데믹 이전에도 그랬다. 미국 살면서 아프면 죽어야 한다는 농담 같은 말이 존재할 만큼 이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험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의 허술한 의료 체계의 현실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특별히 오늘 더 힘들어진 것도 아니다.

사람들 눈치 보며 바쁘게 살아가는 한국 대신 선택한 미국 생활. 불필요한 사람들의 이목과 간섭이 없고 생활이 여유롭다는 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미국 생활에 만족하면서 이 상황을 이겨내고 있다. 코로나 여파로 사람들은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같은 문제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많은 제약과 불편함이 생겨난 이 코로나와 함께 하는 나의 일상 중 지금 제일 신경 쓰이는 건 아들의 운동화 세 켤레다. 친구들과 쉬는 시간마다 공차기를 하거나 뛰어다니느라 매달 사주어도 어느 날 보면 아들의 운동화엔 구멍이 뚫려 있다. 아이들은 구멍 난 옷이며 신발에 신경 쓰지 않지만 생일을 맞이하여 아마존에서 좋은 가격에 하나씩 사 모은 운동화가 세 켤레가 되었다. 친구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운동장에서 뛰어놀지도 못하는 우리 아들은 운동화 신을 일이 없어져 신발장에 앉아있는 새 신발들이 보기 안타깝다. 주인의 발은커녕 손길조차 닿지 못하는 저 운동화들이 신발장에서 작아져 가면 어쩌나....

어린 시절 한 번쯤은 읽어 본 『잭과 콩나무』!

잭의 어머니가 창밖으로 던져버린 콩알 하나가 싹이 나서 덩굴로 자라나고 하늘까지 닿아 거인과 잭이 만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다. 그 책에 나오는 콩나무는 하늘까지 닿는다. 단지 동화니까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우리 집 화분에 우연히 싹이 난 호랑이 콩을 몇 개 심었다. 그 콩 중 하나에서 싹이 나오기 시작했다. 화단에 돌아다니는 지지대를 흙 속에 깊게 꽂아주었더니 그 지지대를 휘감으며 콩 줄기가 계속 자라났다. 50센티미터 가량의 지지대 하나가 부족하여 옆에 하나 더 꽂아주니, 그 옆으로도 지지대를 휘감으며 올라간다. 그 자라나는 속도와 모양에 입이 딱~! 벌어져 버렸다.

그러면서 동화책 『잭과 콩나무』가 상상만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날마다 신기하여 화분에 물을 주고 모양을 관찰하게 되었다. 떡잎이 떨어지고, 꽃도 피고, 그러면서도 끝없이 자라는 줄기를 보며 경이로움까지 느껴졌다.

‘우~와~’ 이 콩나무는 어디까지 언제까지 자라게 될까? 별것 아니라 여겼던 콩 싹에서 이렇게까지 자라나는 콩나무를 바라보니 내 자신이 조금은 초라해지기도 한다.

나는 얼마나 열심히 나의 줄기를 뻗어 보았는가?

주변의 관심과 애정은 바라면서 노력이란 것은 얼마나 해보았는가?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계속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계속적으로 애써야 하는 것인가?

아직도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찾아 헤매면서 답을 구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좋아하는 것을 찾았다고 생각했다가도 그것이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 좋아하는 것을 잠시 쉬어야 하는지 계속 밀고 나가야 하는지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잠시라도 멈추면 그 이상은 안 되고,



아티스트웨이, 나를 찾아 가는 길

진
솔

그냥 끝나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그만두지도 못하고 있다.

고민 고민을 해보니, 새로운 생각이 든다.

‘변화’...

좋아하는 것을 계속하되 조금은 다른 시도와 색깔을 입혀보는 노력을 해보는 것이다. 아마도 이런 고민의 끝은 없을 것이다. 하루 세끼를 진저리가 나도 챙겨서 먹듯, 그리고 그 세끼를 위해 살아가듯, 어찌 보면 대답이 없는 삶이다.

〈시지프스 신화〉의 시지프스처럼 아침마다 산 밑자락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무거운 돌덩이를 끌어 올리듯 살아가게 될 것이다. 좌절과 고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산꼭대기까지 매일 또 다시 돌을 끌어올리는 시지프스의 그 힘에 대한 찬사를 보낸다. 우리 삶은 완벽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에도 정답은 없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답이 될 뿐...

그렇다면 남에게 구애받지 말고 자유롭게, 좌절을 극복하며 성실한 자세로 내가 하고픈 일에 정성을 쏟아보자. 그것이 아니라 해도 어쩔 수 없다. 아니 괜찮다. 그럼 또 새로 찾아보고 바꿔 보면 된다. 실패나, 아니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을 떨쳐버리자. 그냥 내 모습과 내 생각을 사랑하며 나의 삶을 영위하자.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퇴사를 했습니다. 직급이 높아질수록 업계상황이나 회사경영 전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관심이 1도 없어서, 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직장 상사와 맞지 않아서, 이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재취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만의 길을 찾고 싶었습니다. 나를 꽃피울 수 있는 일, 신나게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언젠가는 찾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했지요. 웬만큼 쉬었다 싶어 조금씩 관심 분야의 공부를 해보았지만 생각만큼 열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슬금슬금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백수 생활에 젖어 평생 게으르게 살면 어떡하냐 말입니다. 남편은 제가 이렇게 조금씩 할 때마다 마음 놓고 더 놀라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충분히 쉬다보면 정말 원하는 일이 마음에서 솟아 오를거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며 누워있어도 되고 하루 종일 만화책만 봐도 된다고요. 그러다가 그 생활에 익숙해져 버리면 어쩌냐고 하니, 자신의 가능성과 신의 계획을 왜 믿지 못하냐고 하더군요. 성당에 열심히 나가던 나는 성당에 다니지 않는 그에게 한방 먹었습니다.

해야 하는 일, 생산성이 있는 일만 해온 나에게 안 해도 되는 일, 쓸데없는 일을 해보는 건 무척이나 어려웠죠. 무언가 만들어내지 않는 삶은 가치 없는 삶이라 여겼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좋아. 나는 늦게 피는 꽃이야.'라고 스스로 격려하다가도 '너무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정말 아무것도 못 찾고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우울해지기 십상이었습니다. 평일 낮, 카페 창가에서 책을 읽으며 여유를 만끽하다가도 도심의 거대한 빌딩들을 보며 번듯한 직장 이 있었던 때가 그리기도 했구요. 뭐라도 해보면서 길을 찾아도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알바업에 들어가 파트 타임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언젠는 원할 때 잘 수 있고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고 큰돈이 들지 않는 선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 감사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시계추처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을 만났어요. 창조성 회복을 위한 12주간의 워크샵을 한권의 책에 담은 것인데 혼자서, 혹은 여럿이서 워크샵을 해볼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답니다. 이 책에서는 창조성 회복의 도구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세 페이지씩 의식의 흐름을 적는 “모닝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두뇌의 배출구로써 역할을 하면서 우리 내면에 도사린 완벽주의자이자 심술궂은 비판자인 검열관(잠재의식의 억압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도구는 “아티스트 데이트”입니다. 아티스트 데이트는 매주 한두 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온전히 자기 안의 창조성이라는 어린아이와 만나는 것입니다. 작가는 창조성의 어린아이에게 귀 기울임으로써 창조성의 샘물을 채우고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책의 내용대로 혼자서 모닝페이지를 하고 매주 아티스트 데이트를 하고 주별로 정해진 과제들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 행동과 감정의 이유에 대해서도 더 명확히 알게 되고 스스로를 존중하게 되었죠. 무엇보다 내면의 목소리에 더 잘 귀 기울이게 되면서 나와 타인에 대해 너그러워지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친구에게도 『아티스트 웨이』를 소개했는데 그 친구도 크고 작은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며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청년센터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공모를 했

고 선정이 되어 모임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아티스트 웨이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제 삶은 더욱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긍정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서로가 변화되는 것을 보는 기쁨은 덤이었죠. 탕고 배우기, 카혼 배우기와 같이 버킷리스트에만 넣어두었던 것도 해보고요, 종이인형 놀이 같은 오직 재미를 위한 활동도 해보면서 더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다보니 신기하게도 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부분에 관심이 생기고 더 알아보고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의 길일지는 해 봐야 알겠지만요. 그래서 해보려고요. 지금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관심과 흥미는 진짜니까. 하다가 이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더라도 최종 목적지를 위한 하나의 과정일 테니 말이죠.

여전히 미숙하고 길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보면 결국 내가 원하는 그곳에 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직접 종이
연필을
꽂고 펼쳐
보세요

유
소
정

어느 순간, 글보다 영상이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언제부턴가 손 글씨보다 컴퓨터 키보드나 휴대폰 자판이 더 익숙해진 것처럼 메모를 할 때에도 수첩보다 어플을 더 자주 쓴다. 터치와 검색 몇 번이면 2년 전에 적어 둔 메모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전 수첩을 찾아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헤아리지 않아도 된다. 참 편하다 싶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허전하다. 전 같았으면 필요한 메모를 찾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무심코 읽게 되는 것들에 ‘아 맞다, 이런 일도 있었지... 저런 일도 있었지...’ 하면서 잠깐 생각이나 상념에 잠기기도 하고 추억에 빠지기도 했었을텐데, 이젠 꼭 셋길 없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단조로운 기분이다. 물론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도로변에 핀 코스모스나 야트막한 산등성이 능선을 가까이서 볼 수는 없다.

글보다 영상을 자주 보게 되며 느끼는 감정도 그와 비슷하다. 영상 미디어 매체의 선택폭이 대폭 늘면서 여가 시간에도 주로 책이나 글 보다는 영상을 시청하게 되는데, 마치 지름길을 걷는 기분이다. 순간순간 바뀌는 장면과 소리들을 따라가자면 눈과 귀가 몹시 바쁘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쉽고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때로는 글로 무언가를 접했을 때 생기는 특유의 상상력 내지는 궁금증이 조금 아쉽기도 하다. 그래서 호박이닝쿨책에서 다 같이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과정들이 더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른다.

매주 월요일 저녁에, 각자의 이유로 바쁜 모두가 시간을 내어 둘러 앉아 책 이야기를 한다는 건 마치 내겐 코스모스 꽃을 내다보고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상상력과 궁금증을 펼치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어느 날은 두 단어도 채 적지 못 했고 어느 날은 꽤 긴 글을 쓰기도 했다. 연습장 위로 미끄러지는 펜의 느낌이 너무 좋아 펜스레 웃음이 나기도 했고 하루 끝에 생각을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회고하는 순간을 갖기도 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온라인 메모장 외에 오프라인 메모장을 하나 따로 두어 그날그날의 일과를 적어 나갔다. 드문드문 빠진 날도 많이 있고 제법 빼곡히 써 내려간 날도 있는데 참 신기한 점은 이 메모장을 펼칠 때마다 그 날의 온도나 습도, 듣고 있던 노래나 주변을 둘러싼 환경까지 전부 상세히 기억난다는 것이다.

미지근한 커피에 크래커 반 조각을 먹으며 썼던 글이나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며 썼던 글도 생생히 기억나고 조용한 새벽에 턱을 괴고 앉아 하품을 하면서 썼던 글도 어제 일처럼 기억난다. 그렇다고 영상보다는 글이 훨씬 좋고, 자판이나 키보드보단 손 글씨가 낫고, 메모장 어플보다 수첩이 더 좋다는 말은 아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다를 뿐 무언가가 더 우위에 있다거나 우열을 가리고자 함은 아니니까.

다만 가끔씩은 이렇게 셋길이나 골목길을 탐색하듯 직접 연필을 깎고 종이 노트를 펼쳐 달콤한 설탕을 천천히 녹여 먹는 것처럼 나의 생각과 호흡을 같이 해 보는 것도 값진 일이란 생각을 해 본다.

빨대가 거북이를 관통하고

알바트로스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아기 새에게 먹였다.

공상과학소설도 아닌 이 현실의 이야기를 알게 된 후로 재사용 빨대를 구매해 쓰고 있다. 대나무, 실리콘, 스테인리스, 유리 빨대. 안 써본 종류가 없다. 이것저것을 써보다가 정착한 것은 스테인리스 빨대다. 생리대도 아니고 빨대를 여러 개 써보고 정착했다니. 조금 어색하기는 하나 나의 자랑스러운 호기심이 동한 전력이다.

대나무 빨대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씻은 후 햇볕에 바짝 말려 보관해야 한다. 문제는 나는 그걸 잘 못 했다는 것. 처음에는 가름했던 대나무가 점점 뽕뽕하게 부풀었다. 과일 청이 들어간 음료라도 마시면 과육이 걸려 그대로 막히곤 했다. 그래서 방치한 지 일 년이 된 빨대-대나무를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빨대로서의 활약을 다 한 대나무, 무사히 자연에서 쉬기를. 처음 구매할 때의 기억으로는 생활 쓰레기로 분리 배출하지 말고 흙에 묻어두면 이 주 동안 생분해 된다고 했었다. 자연에서 얻어 사용한 다음 자연으로 되돌려 놓는 과정은 딱 보기도 완벽했다. 해로울 게 하나도 없어 보였다.

분명히 고별인데도 조금은 설레며 집 앞 화단에 묻었다. 무언가를 설레는 마음으로 땅에 묻은 건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이다. 그때는 십오 년 후 스물 몇 살이 되면 한날한시에 학교 운동장에 모여 땅을 다시 파보자며 이름하여〈타임캡슐〉을 묻었었는데. 야속하게도, 아니 자연히 학교는 많이 변했고 약속한 날짜도, 함께 한 친구들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 이번엔 신중했다. 내가 어디에 대나무를 묻었는지 언제쯤 파헤쳐볼지 반드시 기억하리라.

어느 밤, 저녁을 배불리 먹고 산책할 겸 밖으로 나섰다가 그새 잊

어버린 대나무 타임캡슐이 기억났다. 사실 신중하겠다는 나와 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잊어버렸다. 그대로 화단으로 달려가 손을 땅에 넣어 파보았고 내 기억은 정확했다. 아니, 정확했다는 걸 알면 안 되는데. 손을 넣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대나무 빨대가 나왔다. 어디 하나 무르지 않고 튼튼했다. 머리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서 그만 다시 묻어두고 손에 묻은 흙을 털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진 둘 중 하나라며, 대나무 빨대는 생분해된다는 게 아주 거짓말이었거나 그 빨대가 미라였거나. 아니면 분해되기에 적합한 흙은 따로 있는 건가, 왜 내가 묻은 대나무는 흙 속에서 그대로 가만히 있었던 거지.

알아보니 일회용 대나무 빨대의 분해 기간은 약 100일, 그게 아닌 다회용의 경우는 5년에서 10년의 세월이 걸린다고 한다. 플라스틱 빨대가 완전히 썩기까지는 몇백 년이 필요하더라는데, 그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이니 감지덕지해야 하는 걸까. 우리가 사는 궤적은 어쩌면 ‘쓰레기’일지도 모른다. 헨젤과 그레텔의 이야기처럼 바닥에 떨어진 것을 따라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쓰레기로 만든 집이고, 나 역시도 무언가를 떨어뜨리며 왔고, 그걸 따라서 또 다른 사람들이 쫓아오고.

실제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미세플라스틱만 생각해도 우리는 ‘쓰레기’로 만든 궤적을 반복해서 밟고 있다. 우리는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는 말을 습관처럼 한다. 쓰레기로 피해를 보는 건 거북이와 알바트로스만이 아니다. ‘쓰레기’로 사는 우리는 ‘쓰레기’로 서서히 죽어간다.

우리는 우리가 남기는 쓰레기에 왜 그렇게 관대할까, 어떻게 그렇게 관대할 수 있을까.

마을에서 그림책과 놀이 수업을 하는 나는 올 해 일터와 놀이터가 함께 증발되었다. 활동하던 공간들이 문을 열지 않으니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고, 대부분의 모임이 중단되었다. 그래서 집에 머무는 날들이 이어졌다. 한동안은 ‘방학이다’하는 마음으로 느긋하게 지내보려고 했지만 남편과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계속 집에 머물다 보니 종일 밥을 하고, 집안일을 하느라 더 부산했다. 아침 먹고, 돌아서면 점심, 하루 두어 번 간식, 저녁! 네버엔딩 식탁 주위를 맴도는 하루, 하루가 쌓여갔다.

일상의 대부분을 가정을 돌보는데 할애했지만 잠시라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에는 그림을 그렸다. 처음에는 무료함을 달래보려고 소소하게 시작했는데 점점 재미가 붙어 깊이 몰입했다. 하루 대 여섯 시간씩 똑딱, 똑딱 그림을 그리고, 간단한 글을 써서 인스타에 올리곤 했다. 한 책 추진단 활동으로 후보 도서를 읽고, 질문과 서평을 만들어 블로그에

그런데 5월 어느 밤 가족들과 산책을 나갔다가 돌계단에서 넘어지며 다리를 다쳤다. 김스를 하고 한 달 반, 제대로 걸을 수 있기까지는 석달이 걸렸다. 더더욱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신세가 되어 집순이로 밥하고, 그림 그리고, 책 읽으며(간간히 줌 토론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다. 레오 리오니의 그림책 『프레드릭』의 주인공처럼 ‘색’과 ‘이야기’를 모으며 버텨낸 시간이다. 많이 아프고, 몹시 불편했다. 다리가 다 나올 쯤 두 손이 불이 난 것처럼 아파왔다. 손가락이 퉁퉁 부어오르고, 심한 통증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미련하게도 조금씩 아팠던 손을 계속 무리해서 썼더니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마치 독이 무너지는 것처럼 손이 망가져 버렸다.

그림 그리기는 자아를 찾아 즐겁게 춤을 추며 기뻐한지 얼마 되지
않았건만.... 다리에 이어 손까지 아파서 쓸 수 없게 되니 마음이 많이
흔들렸다. 갑자기 겪는 아픈 몸, 눈앞이 캄캄해지며 현실에서 물러나 도망
치고 싶어졌다. 이전에 아팠던 경험도 없었던지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했다. 병원에서 무서운 경고를 듣고 돌아온 날부터 이들은 눈물이 멈
추지 않고 펄펄 쏟아졌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힘들고, 서러웠던 작은 조
각, 조각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손을 잡고 들고 일어난 느낌이었
다. 이후 두어 달은 지금까지의 역할과 일에서 손을 놓는 무장해제의 시
간이었다. 전적으로 대역을 맡아준 고마운 남편 덕분에 미안하지만 잠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쉬는 동안 평소 관심 있었던 위빠사나 명상에 대해 공부했다. 이전에 할 수 있던 것들을 대부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였다. 유발 하라리(<사피엔스>의 저자)의 명상 스승으로 알려진 고엔카의 유튜브 강연과 책을 읽으며 아침, 저녁으로 명상을 했다. 호흡에 집중하여 미세한 파동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과정, 일어나서 휘말렸다가도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 감각에 집중하는 순간들은 마음의 평정심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도인이 된다거나 해탈의 경지에 이를 자신은 없지만 명상을 하는 동안은 잠시 세상이라는 단추를 끄고, 조용한 공간에서 차분히 나와 만날 수 있었다. 명상은 눈을 감아야지만 볼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 많이 아픈 덕분에 몸이 전하는 소리에 더 세심하게 귀 기울이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끝없는 욕망과 욕심을 조금은 더 빨리 알아차리게 되었다. 번뇌의 출처가 밖에서 온 것인지, 안에서 시작된 것인지 구별하는 눈도 점차 밝아지고 있다. 실수 하더라도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보완하는데 좀 더 유연해지는 느낌이다.

두 손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다시 노트북을 두드릴 수 있다면 꿈만 같다. 손에 남은 통증이 사라지면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다. 끝내지 못한 그림책을 완성하고 싶다. 거미가 실을 풀어 내 집을 짓듯이, 속에서 풀어낸 그림과 이야기로 집을 짓고 싶다. 이런 꿈을 꾸며 한마디 하면 아들이 통을 준다. “엄마, 아픈 것부터 다 나은 후에 뭐할지 생각하세요. 벌써부터 그러지 말구.” 분명 올 해는 쉽지 않았다. 그래도 돌아보면 강렬하게 기억될 것 같다. 세계가 몸살을 앓았고, 멈춤을 경험했고, 고독한 시간이 많았다. 많이 아파서, 찼하게 나를 마주했던 시간! 밖이 아니라 안을 돌보던 날들! 만날 수 없어 더 소중했던 사람들과 랜선의 추억들, 올해 남은 두 달도 최선을 다해 춤을 추겠다.



o와 o II

차정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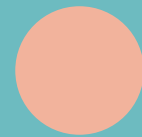
o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숨과 함께 안과 밖을 가볍게 날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어떤 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방해만 없
다면 평온한 것 같습니다. 기회만 된다면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한겨울 따뜻한 방안을 벗어나기 싫은 것처럼. 뜨끈한 아
랫목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한 자세를 계속 유지할 때,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싶을 때, 그 자세를 유지하고 싶진 않지만 유
지하게 될 때, 그만해도 되는 걸 알면서도 억지로 그 자세를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넘칠 때 나에게 질릴 수 있습니다.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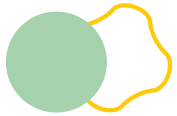
눈을 뜨자마자 눈을 다시 감고 싶은 것처럼. 눈을 감기 위해 눈을 뜨는 것처럼. 어지럽습니다. 서 있는 사람을 보며 나는 살아있는 걸까 생각합니다. 나는 매일 태어나고 매일 사라집니다. 예정된 사라짐. 예정된 만남. 예정된 것은 어쩐지 안심이 됩니다. 나는 매일 안심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도 나와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일제히 침묵합니다. 고요의 한 가운데로 데려다 놓습니다. 가장 깊이 나를 만나고 나면 개운합니다. 어제와는 다른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리조리
깊이
파고들다



시, 우주 그리고 조지훈



김가희

2019년 가을 성북진경축제 개막식에 올린 공연 <고이접어 나빌레라>에서 나는 조지훈 시인의 시 ‘풀잎단장(斷章)’을 낭송했다. ‘풀잎단장’은 선생의 시집을 여러 번 읽어나가면서 내가 직접 고른 시였다. 산이 가까워 성북동을 좋아한 시인이 성북동 한양도성 어디쯤에서 있는 모습이 연상되었기 때문에 선택했던 것 같다. ‘단장’은 완전한 체제를 갖추지 못한 단편적인 문장이라는 뜻으로 단장이라는 표현을 하며 스스로를 낮춘 시인은 한 줄기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을 보며 자신의 몸가짐을 돌아보는 겸허한 자세를 보인다. 무너진 성터에 오랜 세월 묵묵히 한 자리를 지켜온 바위가 있다. 바위는 인간이 자연을 관조할 수 있는 위치로 바위에서 바라보는 풀잎 한 포기는 단순한 풀잎이 아니라 인간과 대화하며 고달픈 인간을 위로하는 영혼을 지닌 존재로 등장한다. 시에서 인간은 자연에서 위안을 얻고 자연을 통해 성장하는 존재다.

올해 조지훈 탄생 100주년을 맞아 <고이접어 나빌레라 2> 공연을 준비하며 조지훈의 시를 꼼꼼히 들여다봤다. ‘풀잎단장’을 다시 읽어보니 이 시야말로 조지훈 시인이 말한 ‘시의 원리’를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너진 성터 아래 오랜 세월을 풍설에 깎여 온 바위가 있다.

아득히 손짓하며 구름이 떠가는 언덕에 말없이 올라서서

한 줄기 바람에 조잘히 씻기우는 풀잎을 바라보며

나의 몸가짐도 또한 실오리 같은 바람결에 흔들리노라.

아, 우리들 태초의 생명의 아름다운 분신으로 여기 태어나

고달픈 얼굴을 마주 대고 나직이 웃으며 얘기하노니

때의 흐름이 조용히 물결치는 곳에 그윽히 피어오르는 한 떨기 영혼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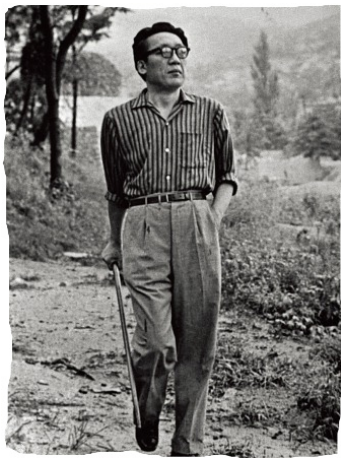
- 풀잎단장-

조지훈에게 인간은 대우주의 일부이며 시는 “자연의 모방에만 멈추지 않고 자연의 연장으로서의 자연의 뜻을 현현하는 하나의 대자연일 수 있는 것이다.”* (26) 그에게 시란 우주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며 지금 여기에 있는 나의 존재를 태초의 시간과 무한한 우주로 확장하여 인식하는 순간이다. 개개의 생명이 자연, 지구, 우주를 이루는 일부이며 각 생명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관계가 이루어낸 생명의 조화와 통일을 포착하여 보여주는 일이야말로 조지훈이 말하는 시인의 일이다.

생명은 자라려고 하는 힘이다. 생명은 지금에 있을 뿐 아니라 장차 있어야 할 것에 대한 꿈이 있다. 이 힘과 꿈이 하나의 사랑으로 통일되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우주의 생명이 아니겠는가, 우주의 생명이 분화된 것이 개개의 생명이요, 이 개개의 생명의 총체가 우주의 생명이라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시는 자기 이외에서 찾은 저의 생명이요, 자기에게서 찾은 저 아닌 것의 혼’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대상을 자기화하고 자기를 대상화하는 곳에 생기는 통일체 정신’이 시의 본질이라고 나는 믿는다. ‘인간 의식과 우주 의식의 완전 일치의 체험’이 시의 구경이라고 믿어진다는 말이다.**

* 조지훈, 『시의 원리』, 나남출판사, 1996.

** 같은 책(29-30)



그에게 시는 우주만물이 타자의 존재를 배타하지 않고 긍정하며 만들어가는 세계, 각각의 생명들이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의 이유가 되는 세계를 깨닫는 체험이다. 각 생명들의 공동체인 우주는 생명의 힘으로 충만한 전일한 존재이다. 조지훈의 시 세계는 생명에 대한 의지와 긍정하는 사랑의 힘을 보여준다.

‘풀잎단장’에서 바위 위에 서 있는 나와 내가 바라보는 풀잎은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연결된다. 풀잎과 나는 “태초의 생명의 아름다운 분신”으로 여기에 태어났다. 태초의 시간은 현재의 생명체 안에 아로새겨져 있으며 나라는 존재는 태초의 시간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 풀잎과 인간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존재로서, 즉 우주 태초의 시간에서 같이 분화되어 나온 존재로서 태초의 시간 이래 지금 여기서 풀잎과 내가 이렇게 만난다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아무리 낮은 위치, 어려운 처지에 있다손 치더라도 각 개체들은 존재 그 자체로서 대단한 사건이며 따라서 각 개체의 생명은 아름답고 소중한 것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다. 이런 생명관으로 볼 때 풀 한 포기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나와 풀잎의 관계는 동등하고 평등해진다.

‘풀잎단장’이 개별 생명체 간의 조우를 통한 연결을 이야기한다면 ‘아침’은 생명의 원리를 말한다. 꽃망울 속에 우주가 있고 우주가 열리는 파동으로 석류꽃 꽃망울이 터질 때 시인은 “주관과 객관이 합일하는 지극히 넓은 세계가 지극히 짧은 찰나에 체득”되는 순간의 파동을 느낀다. 조지훈은 석류꽃이 터질 때 우주가 열리는 것을 본다. 그는 꽃망울 하나를 피우기 위해 온 온주가 움직인다는 사실과 우주 전체가 태초의 시간으로부터 연결되어 진화해온 우주 섭리를 보여준다.

꽃망울 속에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파동! 아 여기 태고적 바다의 소리없는 물보래가 꽃잎을 적신다.

- 아침 - 중에서

모든 생명체들이 평등하게 연결되고 합일하는 순간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우주관은 ‘피리를 불면’에서 생명체들이 연결되고 서로 교감하며 소통하는 관계로 확장된다.

다락에 올라서 / 피리를 불면

만리 구름길에 / 학이 운다.

싸리나무 새순 뜯는 / 사슴도 운다.

- 피리를 불면 - 중에서

내가 다락방에서 피리를 불면 저 멀리서 학이 울고 차운산에 사는 사슴도 같이 운다. 나와 학과 사슴은 서로 교감하는 존재들로 이들의 관계는 수평적이다.

이렇게 볼 때 조지훈의 우주관은 생태학의 관점과 매우 흡사하

다. 생태계 위기에 직면하여 생태학자들은 인간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기 시작했다. 서양 근대 사상의 중심에 자리 잡았던 인간중심주의는 다른 인종, 다른 민족, 다른 계급을 착취했을 뿐 아니라 자연마저 인간 맘대로 파괴하고 착취해왔다. 최근의 생태학은 우주론에서 출발하여 우주와 일치되는 자신을 이해해야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주장* 하는데 이런 점에서 조지훈의 우주관과 닮아있다.

생태학의 관점으로 조지훈의 시를 읽으니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조지훈의 세계관 또는 우주관이 눈에 들어온다. 우주는 빅뱅 이후 진화 과정에 있으며 우주 속 인간은 자연과 별개로, 자연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자연의 각 생명들은 모두 연결된 존재들로 공생 관계를 이룬다. 이 때 말하는 공생의 의미는 인간의 지성에 신뢰를 둔 인간과 자연이 분리된 상태로서의 공생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의 활동을 다 해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인식 위에서 인간이 자연의 흐름 속으로 합류하는 뜻으로 이해해야한다.**

조지훈 시 '묘망'을 살펴보자.

아픈 가슴을 어찌란 말이나 허공에 던져진 것은 나만이 아닌데
하늘에 달이 그렇거니 수많은 별들이 다 그렇거니 이 광대무변한
우주의 한알 모래인 지구의 둘레를 찰랑이는 접시물 아아 바다여

* 문화사회학자 토마스 베리는 “우주와 일치되는 만큼만 자기 자신이 된다”며 우주와 지구의 주체들이 친교하는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실현을 이루는 순간이라고 한다. 나아가 우리 자신은 주로 지적이며 문화적인 발전을 이루어냄으로써 우주 발생 과정의 창조적 활동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점에서 인간은 우주 안의 한 개별 존재라기보다 전체로서 우주가 자기를 표현하는 하나의 존재 양식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에게 인간과 인간의 모든 활동에 대한 더 의미 있는 관점을 갖게 한다고 한다. (18). (강금실 외 7인, 『지구를 위한 법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 다카기 진자부로, 『지금 자연을 어떻게 볼 것인가』, 녹색평론사, 2006.



너 또한 그렇거니

내 오늘 바다 속 한점 바위에 누워 하늘을 덮는 나의 사념이 이다지도
작음을 비로소 깨닫는다

-묘망 중에서-

‘묘망’에서 지구는 광대무변한 우주의 한알 모래이며 바다 역시 한알 모래의 접시물이다. 인간은 그런 바다 속 한점 바위에 누워 있으며 그런 인간의 사념은 얼마나 작은가를 깨닫는다. 인간은 자연을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위치가 아니라 우주 속에서 점점 작아지며 그런 자연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존재다.

공연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번 공연에서 나는 시 ‘절정’을 낭송했다. ‘절정’ 속 나는 인생이 나비날개의 가루처럼 사라질 것을 알지만, 개인의 죽음을 세계와의 단절로서가 아니라 생명의 큰 흐름 속에서 파악하며 그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참회의 마음으로 고요히 웃고 있는 존재로 그려진다. 벼랑 끝에 꽃 한송이가 피기까지 몇만 년을 울고 새운 별빛이 있었고, 꽃 한송이의 그늘을 온 우주가 덮으며 “잠자는 우주가 나의 한 방울 핏속에 안긴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꽃잎이 바람을 일으키며 “바람을 부르는 것은 날 오라 손짓하는 것”이다. 우주의 흐름, 생명의 흐름을 거스르고 영원에 대한 환상으로 도피할 수 있지만 생명의 흐름, 우주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존재의식을 찾아볼 수 있다.

문득 한 마리 흰나비! 나비! 나비! 나를 잡지말아다오 나의 인생은 나비날개의 가루처럼 가루와 함께 절명하기에 ----- 아 눈물에 젖은 한 마리 흰나비는 무엇이나 절정의 꽃잎을 가슴에 물들이고 사된 마음이 없이 죄 지은 참회에 내가 고요히 웃고 있었다.

-절정- 중에서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화려한 나비 날개처럼 생명의 절정의 순간은 더 빛난다. 절정의 꽃잎에 입맞추고 무한한 아름다움을 꿈꾸는 환상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런 환상이 주는 달콤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에 발 딛고 생명의 흐름을 인식하고 현실을 긍정하며 현실을 살아가는 힘, 그것이야말로 조지훈의 생명관이다.

조지훈의 시를 생태학적인 관점으로 읽으니 기후위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을 자연, 지구, 우주에 속한 하나의 존재로, 자연, 지구, 우주를 하나의 전일한 존재로 서로 공생하는 성숙한 세계로 볼 때 이미 인간은 이 자연의 원리, 생명의 원리를 깨뜨렸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재활용을 더 잘 하고 채식을 더 많이 하는 등 다양한 실천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실천이 자연과 우주를 어떻게 인식하느냐하는 인식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야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연과 우주에 대해 인간이 낳을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뉴질랜드 황거누이 강에 법적 권리를 부여한 예*에서 보듯이 인간의 공동체는 이제 땅, 강, 물, 동식물로 확대해야한다. 자연과 우주를 나를 포함한 전일한 세계로 바라보는 일은 곧 조지훈이 말한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며 조지훈의 시를 읽는 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크다.

* 2017년 뉴질랜드 황거누이 지역의 마오리족은 황거누이 강을 자신의 조상으로 인정받은 140년간의 투쟁을 통해 황거누이 강에 인간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강을 소유와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민자들의 관점을 극복하고 자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앞으로 인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준 사건이다.



운동 오지라퍼5 저는 이렇게 운동을 해왔습니다 결국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임민창

수영장과 대중탕을 오가며 수영에 적응하고 나서는 수영이 즐거웠습니다. 실력도 빠르게 향상되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클래스에서는 수준에 따라 4개의 반으로 나누어서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1년 정도의 기간에 가장 높은 수준의 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더 빨리 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을 무서워하던 저에게는 엄청난 발전이었습니다. 그 반에 가기 전까지 자유형에서 시작해 배영, 평영, 접영까지 여러 영법을 익히기도 했습니다. 이 때는 대중탕을 벗어나 자유시간이 가능한 시간에 수영장을 찾아서 개인적으로 연습도 했습니다. 비록 실내 수영장이지만, 물속에서 수영을 할 때 잠시 복잡한 생각을 잊고 자유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꾸준한 수영으로 인한 심폐 능력의 향상은 덤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1시간의 수업만으로도 체력이 바닥 난 느낌이었는데, 수영을 지속할수록 향상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수업 이후에도 개인 연습을 했을 정도로 체력이 생겼습니다. 다시 일상생활에서도 활력있는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 복싱을 통해서 얻었던 자신감



과 체력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긴 시간의 업무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었고, 삶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운동을 충실히 하면서 오는 가장 좋은 효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수영은 특히나 제가 두려워하던 것을 극복하게 했습니다. 물에 대한 공포를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사실은 30대가 넘어간 나이에도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크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무리한 탓인지, 아니면 수영을 할 만한 몸이 아니었던 건지 결국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수영의 특성상 어깨를 많이 써야 하는데, 어깨에 무리가 왔던 겁니다. 다행히 어깨 관절이나 인대가 손상되지는 않았지만, 당분간 운동을 쉬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복싱에 이어 다시 운동을 쉬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에 하지 않던 운동을 못 하게 된 것이 그리 큰일은 아니었겠지만,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극복한 경험까지 느끼게 해주었던 운동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전에는 그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부상이었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운동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었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오랜 시간 못하게 되면 이전에 복싱을 그만뒀을 때처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만 같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운동을 못 하는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빨리 회복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부상을 당하지 않게 하는 법도 필요했습니다. 한 번 부상을 당해보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많이들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동하다가 다치면 따라오는 불편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더군요. 다치지 않고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커졌습니다.

그렇게 운동에 관한 여러 내용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리가 온 어깨도 강하게 만들어서 무엇보다 재발의 염려가 없도록, 지금보다 튼튼한 어깨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깨를 받쳐줄 강한 몸도 가지고 싶었습니다. 복싱, 수영에 국한된 내용보다 좀 더 기초적인 내용을 파고들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고 보니 몸에 대해 정말 많은 연구와 실험, 경험,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방대해서 그중에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운동신경'이 있다면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신경'이라고 불리는 것을 후천적으로 발달시키는 법에 대해서 알고자 했습니다. 복싱과 수영을 배울 때, 기본으로 알려준 몇 가지 운동들에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운동들은 기본적인 체력과 근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들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자료들을 읽으면서 기본 운동들이 필요한 이유는 복싱과 수영에서도 같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싱도 수영도 잘하게 되려면 그 운동의 기술과 테크닉을 열심히 익히는 것이 맞지만, 둘 다 기본이 되는 운동이 비슷했던 겁니다.

그것을 압축하면 '스트렝스(strength)'와 '컨디셔닝(conditioning)'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직 한국어로는 두 단어를 대체할 마땅한 단어도 없기에 그냥 스트렝스와 컨디셔닝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사용되는 표어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강하게'를 운동의 방식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라고 말하면 그나마 이해가 쉬우실 것 같네요. 많은 운동선수들이 지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압축시켜 놓은 개념이니만큼 다양한 해석과 운동이 존재합니다. 일반인인 저로서는 다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최근엔 많이 알려진 단어이지만, 제가 접한 시점에서는 명확한 설명을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사실



운동선수나 트레이너 세계에서는 이미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었지만, 일반인인 데다 운동 경력도 짧은 제게는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개념들은 이해한다고 해도, 운동이라는 분야의 특성상 직접 해보고 코치 받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시 운동 초보가 되어서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지, 어떻게 배우는 건지 알 수 없는 방황의 시간이었습니다. 전문적인 선수들이 배우는 곳에 가기엔 비용이 너무 비쌌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곳에서도 배우기에는 검증되지 않은 곳이 너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경험을 알려주겠다며 무료 세미나를 여는 트레이너 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친 몸을 회복시키고 강하게 만들겠다는 생각뿐이었던 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사람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지금의 저를 있게 했고, 인생의 방향을 변화시켰습니다.

비슷한 나이였던 그 트레이너는 어린 시절에 운동을 하다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포기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제 어깨에 무리가 온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상처와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오랜 시간 트레이너로서 자신의 몸에, 그리고 자신이 가르쳤던 사람들에게 적용했던 내용을 알려주고자 무료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 일반인에게는 좀처럼 반응이 없었고, 그런 가운데 제가 연락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배운 내용은 제가 혼자서 익힌 것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바른 몸의 개념들, 기초적인 체력과 그것을 쌓아가는 방법들, 그리고 운동이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방법들까지... 무

엇보다 그가 강조한 것은 어느 운동을 하든지 '전이'될 수 있는 기본기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저 막연하게 떠돌던 개념들이 정리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특정 운동을 배우기 전에 먼저 몸을 만든다는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몸은 어떤 운동에서도 써먹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전에 알지 못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운동의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배우고 난 뒤로 지금까지 공부하며 운동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저의 몸과 운동은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면서 확실하게 말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기본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기본이 되는 운동이 뒷받침되어야 원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활력이 있고, 일상적인 체력이 있는 생활을 하는 데에도 기본적인 운동이 그것을 뒷받침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운동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는 이후에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운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의 운동 여정이 그리 길지는 않지만, 혼자만의 운동으로 국한되지 않고, 이렇게 글로써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운동의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지만, 앞으로는 정말 일상에서 필요한 운동을 쉽고 재밌게 써보려고 합니다.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게 물으셔도 좋고, 다른 곳에서 배우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일상에서 필요한 운동과 개념들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운동오지라퍼의 운동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언어 표현에 관하여

언어분석 맛 좀 보세요



권준형

개인적으로 철학을 시작한 이후 나는 비트겐슈타인과 러셀에게 매료되어 분석철학을 중심으로 공부하였다. '분석철학은 무엇이다.'라고 한마디로 말하는 데에는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내가 보기에 언어적 표현에 관한 탐구가 분석철학의 주된 임무인 것 같다. 표현에 관한 탐구가 일상에서 부정확한 언어 표현에 의해 야기되는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상적으로 하는 말을 검토해봄으로써, 내가 사용하는 언어 표현에 대해 내가 어디까지 알고 사용하는지 또 어디부터 모르는지를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표현을 검토하는 일은 오직 언어 분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방법의 이해와 유용성을 충분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언어 분석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방식의 토대가 되는 러셀의 기술 이론을 살펴보고 그 유용성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우선, 러셀의 한정 기술 이론은 지칭구와 관련된 존재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그는 지칭구를 술어로 된 기술구로 분석하여 존재론적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말한다. 이 방법론이 비록 존재론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과 그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는 데에 있어서도 가치 있는 논의를

해나갈 수 있다. 러셀의 기술 이론은 '이러이러한 것'과 같은 한정 지칭구나 '권준형'과 같은 고유명사, 그리고 '산'과 같은 보통명사까지 기술구로 분석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우리는 보통 대상에 대해 말할 때, 예를 들어 '이순신'이라고 말할 때 그 표현에 대응되는 대상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하지만 기술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이순신'이라고 말할 때 '이순신'이라는 표현에 함축된 우리가 아는 정보를 말할 뿐이다.

내가 '어떤 대상 X는 이러저러하다.'라고 말할 때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기술구를 함축한 것이다. '어떤 대상 X가 있으며, 나는 그 X가 이러저러하다'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X의 이러저러한 요소를 인식하여 언급할 뿐이지 'X가 곧 이러저러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좀 더 일상적 표현으로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이순신은 임진왜란에서 활약한 조선의 영웅이다.'라고 말할 때 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이순신이라 불리는 x가 있으며, 그 x는 임진왜란에 참전해 활약했으며, 그 x는 조선의 영웅이다.'는 주장을 한다.'라는 형태로 말해진다. 이처럼 어떤 대상을 말할 때는 오직 그 명제에 한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 대상에 관한 자신의 인식에 한해서만 말해진다. 언뜻 보기에 이순신에 관한 위 주장은 상당히 빈약한 주장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빈약해 보이는 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우리가 대상을 인식할 때, 그리고 그 인식한 대상을 상기해내어 말할 때 우리는 전적으로 언어적 수단에 의존한다. 이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대상에 대해 인식한 것뿐이다. 따라서 내가 써 놓은 이순신에 대한 기술이 빈약해 보일 수밖에 없다. 이는 실제로 내가 그에 대한 지식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빈약함의 한계를 언어분석을 통해 스스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술 이론의 유용함이 드러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대상을 언급하여 사용할 때, 그 대상을 직접 지칭하는 것과 같이 행동한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그 대상에 대해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만 그 대상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이순신이라고 불리는 대상은 조선의 영웅이다.' 그 이상을 말하지 않는다. 오직 그것만을 기술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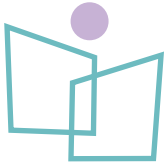
이러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 고찰할 수 있는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대상들을 인식하는 지식이 결국 술어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나는 편의점알바를 하고 있는데, 종종 손님이 제품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때 다음과 같이 내게 기술한다. '어떤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은 파란색 포장지에 싸여있고, 그 종류는 젤리의 종류이다.' 의 형태로 말이다. 이는 평소 우리가 대상의 이름을 말할 때, 단지 그 기술구의 함축적 의미로써 사용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실제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대상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하고자 할 때, 이러한 형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제품이나 기존의 명사로 설명할 수 없는 대상에 관해서 설명할 때 역시 술어의 형태들을 요청해야만 한다. '어떤 대상 I가 있고, 그 I는 터치스크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이팟이며, 혁신적인 통화 기기이고, 획기적인 인터넷 통신 기기이다.' 이는 '아이폰'이라는 함축적 명사가 없을 때 잡스가 최초로 아이폰에 관해 설명한 말이다. 이처럼 마땅히 설명할 수 있는 명사가 없을 때 우리는 서술어를 요청하여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어쩌면 우리가 인식하는 정보는 전부 술어로 분석될 수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 분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보다 명료하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분석은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는 한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석을 함에 따라 나오는 결과는 자신이 오직 그것만을 알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은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 준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자칫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내 생각에 언어표현의 이 사소한 검토는 생각보다 큰 가치를 지닌다. 우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 표현이 곧 대상이라고 여긴 후 말하는 것에는 너무나 많은 오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이러한 검토는 그 오류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검토함에 따라 그 인식을 넓혀갈 기회를 찾게 될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이 논의의 가치는 말하는 주체에게 보이는 세상을 더욱 명료하게 하여, 이해하는 것 이상의 것을 말하여 생기는 오해를 막는데 그 가치가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과 같이 이 논의에서의 가치는 내가 말한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나는 단지 이러한 가치를 인식하고 말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글을 읽어준 독자들도 이 논의에서 나름의 가치를 자유롭게 발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500 파운드와 자기만의 방



김해경

박경리 선생님은 애장품 가운데 재봉틀, 국어사전, 소목장(‘고향 통영의 목가구’)을 가장 아끼셨다고 한다. 어디서 봤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작가 공지영의 말을 전하면 다음과 같다.

“이 재봉틀을 믿고 원주로 왔어. 이 재봉틀 믿고 <토지>를 시작했지. 실패하면 이걸로 샅바느질한다, 다만 내 문학에 타협은 없다...”

박경리 선생님의 유품이 전시된 ‘토지문화관’에는 선생님이 직접 사용하셨던 재봉틀(일명 싱거 미싱)이 있다. 박경리 선생님은 재봉틀로 옷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재봉틀에 관해서라면 박완서 선생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박완서 선생님이 생전에 사용하시던 재봉틀은 ‘JANOME’라는 상표의 것이다. 선생님은 원고를 쓰면서도 옷본을 만들어 당신의 아이들에게 직접 옷을 만들어주셨다고 한다.

1960, 70년대만 해도 재봉틀은 도시의 가정집뿐만 아니라 시골 집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다. 특히 미국 싱어사의 재봉틀은 ‘싱거 미싱’

으로 불리며 한국전쟁 당시에도 제법 대접받는 귀한 물건이었다.

박완서의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중에서 ‘싱거 미싱’과 관련한 내용이 나온다.

“서방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싱거 미싱도 아무리 못 받아도 쌀 한 가마 값은 받을 수 있다네.”

결에서 듣고만 있던 엄마가 불쑥 숙모의 말을 되받았다. 얼토당토않은 소리 같지만, 엄마는 작은집에 얹혀사는 신세가 된 우리의 체면을 조금이라도 만회해 보고 싶은 눈치였다. 그건 우리도 아주 빈털터리가 아니라네, 하는 소리와 다름없었다. 그 후에도 우리끼리만 있을 때는 자주 싱거 미싱으로다 우리의 기를 살리려 들었다. 그러나 그 싱거미싱도 숙부네가 우리 집을 지켜주었으니까 남아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어림도 없었다.

여태껏 엄마의 자존심의 방패가 돼 주었던 싱거미싱 대가리도 그 울퉁불퉁한 모양을 옷 보파리 사이에서 비죽대고 있었다. 미싱 대가리가 재산 목록 일호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해서 창피할 건 하나도 없었다. 박완서의 『도둑맞은 가난』 중에서도 재봉틀과 연관된 구절이 있다.

공장이라 부를 것도 없는 서너 칸 정도의 온돌방에는 쑥닥거려 놓은 형견 조각이 무더기로 쌓여 있고 창가엔 세 대의 미싱이 놓여 있다. 나는 미싱을 돌리며 언제고 양재를 배울 것을 꿈꿀 때가 제일 즐거웠다.

한국전쟁 이후 재봉틀은 여성들에게 옷이나 생활용품을 만들어 팔아서 궁핍한 생활을 견뎌내고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버

팀목이었고, 피난 시절에는 화폐처럼 교환가치가 있는 든든한 재산이었다.

박완서 선생님은 박경리 선생님처럼 손재주가 있었다. 박완서 선생님의 만딸 호원숙씨에 의하면 “엄마는 손을 거의 쉬지 않았다. 정원 손질이든 부엌일이든 소설 쓰기든 계속 뭔가를 하며 손을 놀렸다”고 회고했다. “특히 재봉틀을 잘 다뤄 어린 시절 자식들 옷을 만들어 입히다 시피 했다”고 소개했다.*

딸 넷, 아들 하나를 둔 엄마는 늘 집안일에 충실했다. 재봉틀로 자식들 옷을 만들고 찬 바람 불면 뜨개질 거리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자식 교육에도 열정적이었다. 만딸을 경기여중에 보내기 위해 일본의 산수 문제집을 사다가 번역해 풀게 했다. 운동신경이 부족한 딸의 체육 점수를 올리기 위해 어두운 저녁 골목에서 던지기 연습을 시켰다. 호원숙 씨(61)가 펴낸 산문집 ‘엄마는 아직도 여전히’에 담긴 내용이다.

박완서 선생님의 자전적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의 어머니는 샅바느질하면서 자식들의 학업을 독려할 정도로 높은 교육열과 강한 생활력을 지녔다. 추측건대 박완서 선생님도 친정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자식들에게 옷도 많이 만들어 입히고 자식 교육에도 열성적이었던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영국의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는 여성이 작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500파운드와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리와 박완서 선생님에게 있어서 재봉틀은 어쩌면 500파운드와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 만딸이 본 엄마 박완서 ... “늘 손을 쉬지 않으셨죠”, 중앙일보, 2015.0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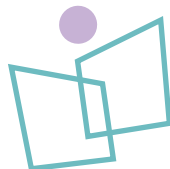


사진 출처 위키백과

버지니아 울프(본명 : ‘에들린 버지니아 스티븐’)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우울증이 생겼고 남편 레너드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와 배려로 글을 쓰게 됐다. 울프는 의붓오빠에게 추행을 당한 경험 때문에 부부관계를 맺지 않을 것과 남편이 공직을 포기하는 것을 결혼 조건으로 삼았다. 레너드는 이를 수용하고 울프와 함께 ‘호가스 프레스’ 출판사를 운영했다.

그녀의 오빠는 캠브리지대에 입학했다. 그러나 버지니아 울프는 불타는 학구열과 문화계 로열패밀리 집안의 자녀였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다. 버지니아 울프는 『자기만의 방』(A Room of One's Own, 1929)에서 만약 셰익스피어에게 누이가 있었다면 그녀는 셰익스피어와 같은 작가가 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으로 당시 여성들이 사회적 차별과 결혼으로 인해 성장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버지니아 울프는 여성이 픽션을 쓰기 위해서는 500파운드(현재 화폐가치로 약 연 4,000만 원)와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자기만의 방』에서 올프는 숙모님이 말에서 낙마하는 바람에 매년 500 파운드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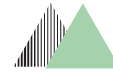
유산이 상속되기 전까지 나는 신문사에서 잡다한 일자리를 구걸하고 여기에서 원숭이 쇼를 기고하고 저기에서 결혼식 취재 기사를 쓰면서 생계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주소를 쓰고 노부인들에게 책을 읽어 주거나 조화를 만들고 유치원의 어린아이들에게 철자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몇 파운드를 벌었지요. 그러한 일이 1918년 이전의 여성들에게 개방된 주된 일거리였습니다.

제인 오스틴, 에밀리 브론테, 샬럿 브론테 등과 같은 중산층 여성 작가들은 가족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동의 거실에서 글을 썼다고 한다. 오롯이 혼자 글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자기만의 방도 500 파운드와 같은 소득도 기대하기 어려웠던 위의 여성 작가들은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라는 당대 사회의 운명에 간헐했다. 포르투나(운명: Fortune)의 힘을 인정하면서도 글을 쓰려는 자의 유익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다. 독서와 교육에 대한 열의와 글쓰기를 통해 포르투나에 대항해서 비르투스(용기: Virtus)를 가지고 탁월한 문학적 능력을 발휘했다. 지금도 500파운드와 자기만의 방이 없는 포르투나의 고단한 삶 속에서 비르투스의 힘을 믿으며 묵묵히 글쓰기를 하는 많은 여성 작가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싶다.

재활용만 하면 다 괜찮아질까?

다큐 <플라스틱 차이나>가 던져준 질문들



글 김보람

코로나19로 인해 변한 여러 풍경 중 하나는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먹게 된 것이다. 식당과 카페가 문을 닫았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안전'을 위한 일이라며 배달과 포장에 '권장'되는 시기를 보낸 탓일까. 확실히 배달을 시키는 횟수는 늘고, 요리를 하지 않는다는 양심의 가책(?)은 줄었다. 재활용 수거함엔 이집 저집에서 내놓은 플라스틱 포장 용기가 쉴 새 없이 쌓여간다. 얼굴을 마주하기보다 누군가 내놓은 쓰레기를 통해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요즘이다. 오늘도 재활용 봉투를 집 밖에 내놓다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긴다. 이 많은 플라스틱들은 모두 어디로 가고 있을까?

플라스틱하면 떠오르는 몇몇 영화가 있다. 하나는 지난해 한 전 세계에서 봤던 다큐멘터리 <알바트로스 Albatross(2017)>다. 작품의 배경이 된 태평양 미드웨이 섬에는 바다에서 떠 밀려 온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하다. 그곳에 사는 새들은 쓰레기를 음식으로 착각하고 삼키다 죽어간다. 죽은 새의 몸 안에서 쏟아져 나온 플라스틱 조각들의 이미지가 강렬한 영화였다. 또 다른 하나는 3년 전 서울환경영화제에서 본 다큐멘터리 <플라스틱 차이나 Plastic China (2016)>다. 앞의 영화가 인간의 편의 때문에 파괴된 생태계를 보여준다면, 후자는 인간이 만들

어낸 쓰레기가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를 이야기한다. 환경 파괴로 고통 받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왔지만, 환경 파괴의 주범인 인간의 삶이 오히려 쓰레기에 종속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더 충격적인 영화였다.



수거된 쓰레기들은 어디로 가나?

〈플라스틱 차이나〉는 중국 산둥성의 한 시골 마을 재활용 공장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다. 영화는 공장에 사는 10살 남짓의 소녀 ‘이제(Ih Zhe)’를 소개한다. 쓰촨성 지역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던 이제는 4년 전 가족들과 함께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 이제는 할머니 품으로 하루 빨리 돌아가고 싶지만, 부모는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답을 주지 못한다. 거대한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이 세계 각국에서 수입한 쓰레기들을 싣고 마을로 들어오면 이제와 가족들은 그 안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을 분류하는 일을 한다. 그렇게 버는 일당은 하루에 5달러 남짓, 이제는 한 손엔 둘째 동생의 손을 잡고, 등에는 막내 동생을 업고 재활용 공장을 누비며 하루를 보낸다.

영화의 첫 부분에 ‘중국은 전세계 플라스틱 쓰레기의 최대 수입국’이라는 자막이 나온다. 중국은 미국, 일본, 한국, 유럽 등의 국가에서 약 730만 톤의 쓰레기를 수입해왔다. 영국에서 모은 폐지의 55%, 플라스틱의 25%, 미국의 쓰레기 중 78%가 중국으로 간다고 한다. 이것들을 다시 장난감이나 옷, 포장재의 재료로 쓰이는 펠릿 형태의 원재료로 만들어 수출하는 것이 중국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이다. 1980년대부터 30여 년 간 이어져 온 이 일은 중국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해왔다. 영화가 제작될 2014년 당시엔 산둥성 마을에 5000여 개 되는 공장이 있었다고 한다. 영화 속에선 밤낮없이 쓰레기들을 분류하고 씻어내

는 사람들과, 설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가 나온다. ‘돈’이 되는 곳에 ‘사람’이 있었고 쓰레기와 함께 살아가는 현재의 가족들의 일상은 그 안에서 만들어졌다.

이제는 학교에 가는 대신, 동생들을 위해 버려진 쓰레기 속에서 쓸 만한 장난감을 찾아내고, 버려진 잡지에서 구두 사진을 오려서 스크랩북을 만든다. 해외에서 온 잡지는 아이들에게 세상 소식을 알려주는 교재가 된다. 비닐 포장재로 집을 만들고, 과자 포장지를 오려 만든 물건들로 소꿉놀이를 한다. 아이들의 기발한 ‘재활용’을 지켜보는 재미도 잠깐, 영화를 보는 심정이 점점 씁쓸해진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내 눈에도 매우 익숙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쓰레기는 집 밖을 떠나는 순간 인간의 삶에서 분리되는 것이라 단순하게 생각했었다. 내가 버린 물건이 중국에 가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못했던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

영화를 만든 왕지우리앙 감독은 전작 〈쓰레기로 포위된 도시, 베이징〉을 찍고 나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재활용 센터를 방문했다가 그곳의 쓰레기들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3년간 그 경로를 추적했다고 한다. 다큐멘터리 감독들은 자신이 발견한 것을 세상에 이야기하기 위해 영화를 만든다. 그는 소비 중심의 사회의 이면을 보여주기 위해 작은 소녀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았다. 환경보다는 경제 성장이 중요한 사회 속에서 설 새 없이 배출되는 쓰레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야기하기 위해. 그리고 그곳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영화를 보고 있는 마음이 자꾸만 불편해진다. 이런 마음은 어디서 비롯한 것일까?

환경을 위해 나는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환경에 대한 수많은 문제제기와 캠페인 속에 쌓인 채 살아

간다. 모두 타당한 말들이지만 그것이 실제 내 삶에 스며드는 건 왜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로 인해 지구가 망해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왜 좀처럼 나의 ‘오늘’에는 와 닿지 않는 것일까. 내가 습관처럼 해오던 것들을 대부분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강조하기 때문일까. 어쩌면 나의 삶 자체가 소비하는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영화에서 조명하는 또 다른 인물 ‘쿤’의 삶은 소비 중심 사회의 또 다른 이면을 보여준다. 재활용 공장 사장인 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소기업 CEO의 이미지와 다르게 영화 속에서 ‘노동자’의 표상이 된다.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기계 옆에서 땀 흘리며 보내고, 몸이 망가져가는 와중에도 일을 쉬지 못한다. 이 일을 왜 하느냐는 질문에 “먹고 살려면 이 길밖에 없다”고 답한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새로운 자동차를 장만한다. 그의 눈빛 속에 자본주의 사회의 욕망이 보인다. 지금 일하면 언젠가는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지만 그 안에서 값아 먹히는 삶은 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보인다.

환경을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믿고 있던 나는 정말 괜찮은 것일까? 분리수거를 충실히 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동안, 과소비를 유도하고 쓰레기를 생산해내는 거대한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 그동안 내가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영화가 내게 던져준 질문들은 이런 것들이었다. 소비 중심 사회 속의 굳건한 계급 구조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망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자원 재활용에 대한 방법론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들.

왕지우리양 감독은 이 영화로 2017년 서울환경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다. 그가 짧은 영상을 통해 전해온 수상소감에 이런 말이 있었다.

“이 작품을 찍을 때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영화를 당신과도 함께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웃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함께 직면하고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같이 행동합시다.”

덧1.

영화는 만들어진 직후 중국에서 상영 금지가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일부 편집본이 공개됐고 중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중국 정부는 2017년 7월 세계무역기구에 ‘고체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통보했고, 그 결과는 2018년 세계 각국의 쓰레기 파동으로 이어졌다. 이후 영국은 25개년 쓰레기 감소 계획을 세우고, 유럽연합은 2018년까지 비닐봉지 80%를 감소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자원 구조에 대한 근본적 재고를 시작한 국가들이 생겨났다. 영화가 만들어낸 다행스러운 변화다. 그렇지만 폐기물 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쿤’의 가족과, 그 안에서 일하던 ‘이제’의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덧2.

〈플라스틱 차이나〉의 원제는 〈塑料王国 (쇼로왕국)〉으로 2년 전 KBS 〈독립영화관〉을 통해 방영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아쉽게도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경로를 찾기 어렵다. 유튜브에는 20분 가량의 편집본이 올려져 있다. (<https://youtu.be/rKEbGYTbLdg>) 영어자막이 있는 공식사이트에서도 작품의 링크를 구매할 수 있다. (<https://www.cnex.tw/plasticchina>)



2020
야책문학

산중 샤워*

권남옥

바위도 땀 흘리는 뜨거운 아침
고민 한 줌,
부끄러움 한 줌 산에 오른다

부서지는 아침 햇볕에 샤워를 하고
흑흑 흑흑 개구리 소리,
까악 까악 까마귀 소리로 치장을 한다

햇볕이 열싸안는 산의 아침

* 산중(山中)샤워(Shower)



단풍

김진태*

삼각산 골짜마다 단풍이 물들었소
앞골짜 은행나무 노랗게 물들었고
뒷골짜 단풍나무 빨갛게 물들었소

* 정릉 아리랑시장 상인회 회장

코스모스

김진태

길가에 코스모스 예쁘게 피어있네
예서도 울긋불긋 제서도 울긋불긋
가을에 전령들이 어여쁜 소식주네

祖上님

최성호

무념무상 터득하시어
인간사 그윽히 바라보시다
답답하시여 달빛으로 한 말씀 이르시니
오륜이 황금에 눌러 길을 잃었는데
거한 차례상 말고 정한수 한 그릇
소반에 담아 두거라
얼마지 않아 이곳으로 너도 와야하니
옳하고 옳로운 일 몇 번 하여 보아라
이곳에는 거짓없이 기록하니
큰 도움될 것이다

자화상*

임민창

어둠 속에선 대답이 없다
이렇게 외로운 공간은 너무도 많다.

어둠 속에는 나만이 있다
내가 있다고 인식할 뿐, 보이지 않는다.

어둠 속의 나는 단절되었다
발을 들여놓은 순간,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는다.

어둠 속에서 나는 더듬으며 나아간다
이 안에 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둠이 가고 나는 보이지만
여전히 외로운 공간이다.

이제는 익숙해져도
나는 또 어둠 속을 더듬는다.

* 이 시는 호박이닝쿨책 글쓰기 모임 〈필복〉 활동 중 시인 이상의 〈자화상〉을 모방해서
쓴 시입니다.

비

진솔

네가 오는 소리가 좋아
창문을 열었다.
무릎 위 놓인 책은 보지도 않고
너만 바라보다
앉은 자리가 축축해졌다.

젖지 않으면서 빗소리만 들을 수는 없을까
하지만 그런 비는 지나가는 사람일거야
창문을 닫으려다 만다.

문을 활짝 열고 너와 만나고 싶다.
우리 사이에 아무 장벽 없이
서로 얼싸안고 눈물의 춤을 추고 싶다.
여기저기 찢긴 너의 마음
빗물로 씻어주고 싶다.

안녕.
비가 내리는 날이면
다시 찾아올 너를 위해
내 방 창문을 열어둘게
그때 또 함께 아파할게

고추장

진솔

있잖아
나
다 나온 줄 알았는데
아직도 피가 묻어나와

이제는 되었다고
이만하면 건강해졌다고
그러면 매번

이봐요
거기
그늘진 곳에 묻힌
장독뚜껑을 열고
해를 좀 들여야겠어요
곰팡이는 걷어내고요

그러면 오래 먹을 수 있고
장맛은 깊어지니까요

내가 온종일 기다리는 시간

조성권

내가 온종일 기다리는 시간, 저녁 7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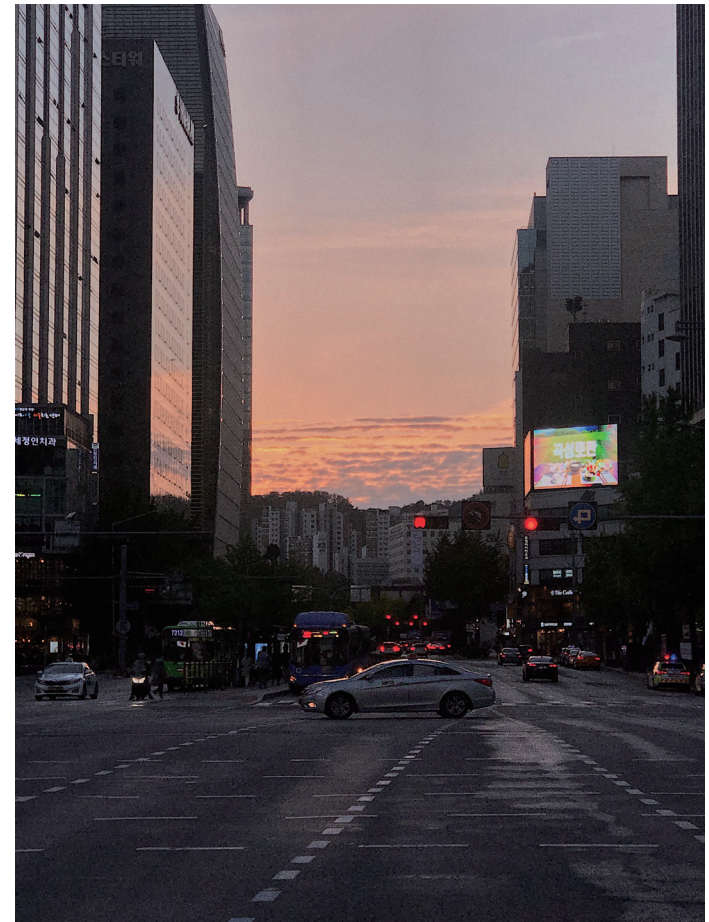
이 시간이 되면 일곱 자리의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함께 곧 현관 문을 열고 네가 웃으며 들어온다. 너도 나만큼 이 시간을 기다렸을까 문득 궁금해진다. 다시 만난 우리는 오늘 있었던 하루를 공유한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쉽게도 너는 몇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배터리가 다 된 핸드폰처럼 미동이 없다. 그렇게 아쉬움을 뒤로한 채 이윽고 나도 너를 따라 밤을 함께 맞이한다.

이렇게 5일을 반복하고 나면 어김없이 주말이 온다. 그간에 밀린 대화가 오고 가고 한 주 동안 말하지 못했던, 또는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서로에게 쏟아낸다. 다 쏟아내고 나면 정적이 흐르는데 그 고요함마저 같이 즐긴다.

행복한 시간은 왜 늘 빠르게 흐르는지. 어쩌다 보면 벌써 일요일 저녁, 역시 이들은 우리에게겐 짧다.

난 이제 회사에 다니지 않는데도 여전히 너 때문에 월요병을 앓는다.
사랑을 앓는다.



힘

이혜성

건강하고 사랑해

이 말 한마디가

황폐한 내 눈에 퍼석함을 골라준다

가슴이 따뜻해진다

좋은 것만 보인다

연필

이혜성

오랜만에 연필을 꺾는다

칼날을 시작부터 깊은 각도로 꺾으면

내가 원하던 연필 모양보다

연필심이 떠올라서 별로다

이래저래 힘 조절하면서

연필을 꺾다 보니

엄마가 연필 꺾아주시던 모습이 생각이 난다

내가 원하는 연필 모양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꺾아주시던 모습

난 엄마가 꺾아주던 연필 다 좋았어

젊은 엄마의 모습

두 눈에 담아와서인지

어느새 내가 그 모습 그려가며

연필을 꺾고 있다

그때로

우리가 함께였던 그때로

그 시절 두 소녀가 그림다

이별Ⅱ*

이밥

“서분아 너 이리 좀 들어와 보렴”

“네”

늘 온화하시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신 어머니다. 오늘은 더욱 더 형형하시다. 마치 그 어머니의 눈빛이 자신의 몸을 관통하여 자신 뒤에 서 있는 벽에 가서 닿는 듯한 느낌이다. 힘들다. 차마 어머니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어 방바닥에 비춘 자신의 얼굴만 쳐다본다. 방바닥에 비춘 자신의 얼굴은 장판 밑 구들장의 흙 결들을 따라 울퉁불퉁 오르락내리락 마치 태풍에 치이는 파도 같다. 그런 장판 위로 담배 한 갑이 미끄러진다.

“이제부터 너 이것을 피우거라”

“네?”

“이제부터 네가 이것을 피워도 되는 나이의 여자처럼 너를 생각하거라”

“네?”

“네가 나이가 아주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어머니... 저한테 어떻게...” 서분은 그날 처음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쏟는다.

“그리고 어서 빨리 늙거라. 그게 내가 지금 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다”

“아으으으흑흑 흑흑흑....” 서분의 눈과 입에서 서러움이 끊어지지 않고 매달린다.

“그래. 어서 빨리 늙어야 한다. 그래야 네가 살 수가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서분은 울고 또 울며 걷는다. 관인을 지나 냉정리로 들어가는 고갯마루를 넘는 내내 서분은 운다. 소쩍소쩍 그날 밤 유독 그 고갯마루 소쩍새 울음소리가 요란했다. 녀를 때마다 매번 사람들이 가끔 마주쳤다는 달걀귀신을 만날까 늘 조마조마했던 고갯길, 그래서 어서 빨리 넘어가길 바라며 늘 조급했던 고갯길이였다. 오늘 서분은 이 고갯길이 백 리, 천 리 세상 끝까지 이어지기만을 바라며 눈물을 흘린다. 그저 이대로 울다가 이대로 걷다가 세상 끝으로 들어가길 지금 이 세상과 이별하길 소쩍새와 함께 우는 서분이다.

소쩍소쩍 소쩍새야 너는 뭐가 슬피 그리 매일 울어대니

소쩍소쩍 소쩍새야 너도 내가 슬피 우는 이유 궁금하니

소쩍소쩍 소쩍새야 너도 빨리 늙어야 살 수가 있는 거니

소쩍소쩍 소쩍새야 너도 그래서 그리도 슬프게 우는 거니

그 소쩍새, 서분의 그 마음 그대로 들었을까? 그날 이후로도 한동안 소쩍새는 고갯마루 넘어가는 서분과 함께 울어 었다. 소쩍소쩍 소쩍소쩍.

“앞으로 마음이 허전할 때는 이게 조금은 도움이 될 거다”

친정어머니는 서분과 헤어지는 마당에 담배를 쥐여 주었으나, 서분은 그것만은 들고 올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이후 십 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은 ‘그때 그 것을 들고 올 걸 그랬나?’, 후회가 생길 때도 있다.

* 이별의 앞 부분은 <정릉야책> 5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순옥이를 심하게 때려준 날은 더더욱 ‘그 때 그 것을 들고 올 걸 그랬나?’, ‘그저라도 피워야 순옥이에게 조금이나마 너그러워지려나?’, ‘어머니 말씀들을 들을 걸 그랬나?’, 그때 놓고 온 그것이 생각이 나곤 했으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서분은 남은 인생을 내내 할머니로 살 수는 없었다. ‘그래. 안 갖고 오길 잘 했지’ 오늘도 역시 같은 답으로 스스로를 위로한다. ‘그 나저나 앤 지금 나간 지가 언젠데 여태 집엘 오질 않는 거야? 이게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집을 치우기는커녕 치워놓으면 어질러놓기나 하고...’ 자신을 닮아서 그리도 예뻐했었나? 전쟁이 나기 전 남편은 학교를 마치고 오면 늘 순옥이를 무릎에 앉혀놓았었다. 밥을 먹을 때도 늘 남편은 순옥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수저를 들곤 했을 정도였다. ‘하긴 그렇게 자기 예뻐해 주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으니, 저게 저리도 덜렁거리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순옥이에 대한 연민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그런 마음은 잠시만 들고 나갈 뿐이었다. 서분은 늘 순옥이만 보면 부아가 치밀어 올랐다. 그리도 예뻐하던 딸마저 버리고 간 남편의 이목구비가 그대로 순옥의 얼굴에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사사건건 단 한번도 쳐주지 않던 남편처럼 무슨 말이든 서분의 말에는 토를 다는 성격 때문인지 서분은 늘 순옥과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채 두 마디를 넘기지 못하고 욕을 해대며 손찌검을 일삼았다.

“내가 나중에 치운다고 했잖아. 나중에 치워도 어차피 치우는 건 똑같은데 왜 자꾸 엄마는 내 트집만 잡고 그래?”

“이 년이 이게, 이게 누굴 닮아 이리 매를 벌어?”

구시렁거리는 버릇도 남편에게서 온 건지 순옥은 매를 맞으면서도 늘 구시렁대며 서분의 매를 벌곤 했다.

“아, 아프단 말이야. 그만 때려 정말! 나 정말 오늘은 집 나가서 안 들어올 거니까 그리 알라고!”

“그래 이 년아 내 너 같은 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어디 가서 뉘지던 네 마음대로해 이 년아. 이런 육시랄년 같으니라고!”

“에이 정말로 오늘 들어오는 줄 봐라!”

아아... 내 처지가 어쩌다 이리되었나! 순옥이와 이렇게 악다구니를 벌인 날이면 언제나 신진사택 첫째 딸로 남부럽지 않게 자라던 어린 시절이 설 뜻 머리에 스친다. 영평 마님이라 불리는 우리 어머니는 내게 단 한 번도 손찌검은커녕 언성을 높이셨던 적도 없었는데... 내가 도대체 왜 이러나? 그나저나 애는 나간 지가 언젠데 여태 들어오질 않나? 제가 가봐야 복희네나 가 있겠지? 그나저나 이게 또 거길 다녀와선 내 속을 얼마나 긁어댈까? 이상한 일이다. 분명 내가 배 아파 낳은 딸인데... 어찌 순옥이 이것만 생각하면 내 속이 매번 이리 부글거리나! ‘엄마도 복희네 엄마처럼 돈 많은 아저씨한테 시집가서 나도 좀 맛있는 것도 좀 먹여주고, 예쁜 옷도 좀 입혀주고 그러란 말야’ 이게 분명 복희네를 다녀와선 분명 또 이 소리를 해대며 내 속을 긁을 텐데... 이년 집에 기어들어 와서 또 그 소릴 하기만 해보라지...

오랜 시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딸 걱정과 함께 서분은 또 제 아버지를 쫓 빼뺏은 순옥의 얼굴을 떠올리며 진저리를 쳐댄다.

“우리 엄마는 아마 새엄마가 분명해. 어떻게 매일매일 나만 보면 욕을 하고 때리거나 하고... 정말 엄마가 콧 죽어버리던지... 니네 엄마처럼 어디 먼 데로 시집이나 가면 좋을 것 같아.”

서분의 예상대로 순옥은 또 복희를 만나서 자기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 한탄을 하고, 그런 순옥을 복희는 답답하다는 듯이 쳐다본다.

“그래도 언니는 그런 엄마라도 엄마가 있잖아. 나는 이제 고아난 말이야. 딸 버리고 판데 시집간 우리 엄마가 더 나쁘지... 안 그래 언니?”

“뉘... 난 그래도 뉘... 난 네가 부럽기만 한 걸 뉘. 너네 엄마 시집

간 아저씨가 너네 집에 논도 한 마지기나 사주고 집도 지어주고 명일마다 너 웃도 보내주고... 난 제발 우리 엄마도 판 데 시집가서 나 좀 너처럼 호강시켜주면 좋겠는 걸 뭐...”

“아... 참... 언니도... 언니! 아까부터 자꾸 똑같은 얘기만 몇 번을 하는 거야? 어쨌든 언니가 내 신세보단 훨씬 나은 줄이나 알라고! 아무리 언니한테 못 된 엄마라도 일 년에 엄마 얼굴 한 번도 보기 힘든 나에 비하면... 에이 아니다 아냐... 암튼 그런 줄이나 알라고! 언니 어쨌든 이제 시간도 많이 늦었으니까 언니 집에 가야지. 일어나 이제. 내가 데려다줄게”

“나 오늘 니네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나?”

“안 돼. 오늘은 더더욱 안 돼. 지난번처럼 또 언니네 엄마 우리 집 찾아와서 또 우리 할아버지랑 싸우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 판 날... 엄마랑 싸우지 않은 날 우리 집 와서 자고 가. 일단 오늘은 집에 가자. 얼른 일어나”

“에이 오늘은 정말 집에 가기 싫은데...”

나이는 두 살이나 어리나 키도... 몸집도 그렇고... 여러모로 복희가 언니 노릇을 하는 육촌지간이다.

집 앞에서도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순옥을 억지로 집어넣고 발길을 돌리는데 서분과 순옥의 악다구니가 복희의 귀를 때린다.

“아니 이 년이 그러고 집을 나갔다가 이제야 기어들어 왔으면 짹 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또 그놈의 복희네가 어찌고저찌고야! 이 년이 이게 정말 또 매를 벌어요!”

“아유 정말로 엄마는 내 친엄마가 아닌 것 같아! 아유 진짜로 복희네 엄마처럼 판 데 시집이나 가버리라고!”

아... 저 정도 악다구니면 분명 순옥은 또 집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올 것이고, 당숙모께서도 분명 또 우리 집엘 찾아오실 텐데... 복희는 바로 발걸음을 돌려서 서분네로 들어간다.

“아주머니, 저 복희예요”

“뭐? 누구라고?”

“복희라고요. 저 혹시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되나요?”

냉정리 30호 집들은 서로가 일가라 누구건 어느 집에서 잠을 자건 상관없는지라, 서분도 순옥이를 한번 획 흘겨보곤 복희에게 선선히 잠자리를 내준다. 복희도 함께 자는 이 밤, 순옥은 오랜만에 맘 편히 자리에 눕는다.

“복희야... 너희 엄마는 요즘도 그리 소식도 없다니?”

“네... 그렇지요 뭐...”

“할아버지 진지 쟁기는 건 별 힘든 건 없고 넌?”

“네... 뭐... 늘 하는 일인걸요 뭐...”

“그래... 너도 참 힘든 일이 많을 텐데 네가 참 기특하다 복희야. 우리 순옥이가 너 반만 돼도...”

아이고 또 무슨 싸움을 또 벌이시려고 저리 말씀을 하시나... 서분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복희는 벌써부터 가슴이 콩닥거리는데... 아... 다행히도 순옥은 벌써 잠들어있다. 하긴... 엄마한테 만나질 동안 매타작을 당했으니 피곤하기도 하겠지. 다행히 서분도 그 정도에서 말을 멈춘다.

‘딸 버리고 간 독한 년이라고, 나도 욱 꽤나 했었지만... 어쨌든 복희 엄마가 잘 한 건지도 모를 일이지. 재취한 덕에 복희가 중학이라도 가게 된 거고... 그 차이일지도 모르지... 아니... 당연히 그 차이일 거야... 순옥이도 중학이라도 보내줬으면 저리 철없이 굴진 않았을 텐데...

아무리 먹고사는 게 벅찼어도 그랬지... 내가 왜 이리 바보같이 살았을까?’ 서분은 오늘 밤 더더욱 잠을 이루지 못할 것만 같은 느낌이다.

“아아아아아... 아!!!!”

수현이가 오늘 밤에도 경기가 들었나 보다. 그렇게 제 혼자 속 편히 살겠다고 떠났으면 짐이나 얹혀놓고 가질 말 것이지... 남편이 떠나고 한 달 후 서분은 자신에게 남편이 또 한 생명 남겨놓고 간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전쟁 통에 낳은 아들이었다. 젖도 잘 나오지 않았고, 젖 말고는 달리 먹일 것도 없는 시절이었다. 더군다나 전쟁 통에 나는 아이는 태어나길 애초에 약하게 나왔고, 돌도 되기 전에 폐렴도 들었다. 그런 애한테 약도 한번 써주질 못했던 탓일 게다. 수현이는 여섯 살이 넘도록 서질 못했다. 여덟 살이 되어서야 겨우겨우 벽을 잡고 걷기 시작했는데... 그렇게라도 걷기 시작한 후부터 밤마다 다리를 꼬며 비명을 지르곤 했다.

설핏 잠이 들었으려나? 수현이의 비명에 잠을 잠깐이라도 잔 건지 아예 못 자고 뒤척였는지 헛갈리며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아주머니, 그냥 누워 계세요. 수현이는 제가 좀 주무르게요.”

어느새 복희는 수현이의 다리를 주무르며 수현이를 어르고 있다.

“안 아파 안 아파 이제 곧 아프지 않을 거야”

“원... 애도 참... 거 꽤 오래 주물러야 할 텐데... 넌 내일 학교도 가야잖니?”

“괜찮아요. 아주머니. 저 잠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현이는 제가 계속 보고 있을 테니 아주머니나 주무세요. 아주머니야말로 내일 장에 가야잖아요?”

“어이구... 네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니?”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요? 전곡장 삼철장인 거 다들 알잖아요. 내일 17일이고요”

“어... 어... 그래그래... 혹시 수현이 주무르다 힘들면 순옥이... 아니다 아냐... 나 깨우고...”

“네. 그럴 테니 걱정 마시고 어서 주무시기나 하세요.”

복희의 의젓한 모습에 서분은 가슴이 먹먹해진다.

‘순옥이도 중학이라도 보냈어야 했는데... 수현이만 저렇지 않았어도 내가 어떻게든 순옥일 중학이라도 보냈을 텐데... 그때 고집이라도 좀 부려볼 걸...’

서분은 이년 전 그 일에 이제야 몸서리를 친다.

“수현이 몸이나 잘 건사시키고 개 몸이나 성해지면 개 가르칠 생 각이나 하지 뭘 딸애를 중학까지 보내려고 하느냐?”

“아... 네... 아버지님...”

전쟁 전의 시아버님이라면 과연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서분은 그때 시아버님의 그 야속한 말씀보다 그 말씀에 어떤 토도 달지 못하고 방을 나온 자신에게 몸서리가 쳐진다. 수현이 몸이라도 성했더라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려나?

어느덧 수현의 비명은 새근거리는 소리로 잦아들고, 복희는 슬며시 다시 자리에 눕는다. 조금이라도 잠을 자야 할 텐데... 오늘 이 밤 서분의 마음엔 여러 사람이 들어왔다 나간다. 복희와 복희의 엄마, 가버린 남편, 순옥이, 수현이, 시아버님, 윤천의 어머니... 아... 그리고... 그 사람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 안경을 껴던 그 사람, 엄지와 검지에 굳은 살이 짙었던 그 사람, 나를 그 눈에 온전히 담았던 그 사람... 그리고 그이의 그 발자국 하나도...

“아니... 이 고개가 여름이면 그렇게 소쩍새가 울던 고갯데 요즘은 도통 소쩍새 소리를 들을 수가 없구먼 그래”

“그게 뭐 요즘만 그런가? 벌써 몇 년이나 된걸... 그러게, 그렇게 밤마다 울어대더니 벌써 몇 년이나 어딜 가 있는 거야? 다시 오긴 오려나?”

“새가 자기 둥지 박차고 나가면 그걸로 끝이지 오긴 뭘 또다시 오려고?”

“다른 새들은 다 멀쩡하게 때 되면 날아와서는 울어대는데... 소쩍새만 어찌 안 오나 모르겠어.”

“자자 저리들 비키세요. 저리들 비키세요.”

고개를 넘던 일행들이 뒤를 돌아보니 자전거를 탄 우체부 하나가 고개 내리막을 브레이크 소리 킁킁거리며 내려오고 있다.

“아 네네네네 넘어지지 말고 잘 내려가시라요” 고개를 넘던 일행들은 한쪽으로 비켜서며 우체부 자전거가 일으킨 흙먼지를 물끄러미들 바라본다.

“그나저나 요즘은 우리 동네로 저 우체부가 자주도 오는구먼그래”

“그러게 말이여. 달포에 한번은 오는 것 같구먼”

“그러게 이 산골에 누가 편지 보낼 일 있다고 말이여”

“눈들은 어따 두고 또 귀들은 어따 두고들 다니는 것이여들? 달포마다 오는 우체부는 봐도 그 우체부가 뭘 갖고 오는진 여태들 몰랐던 것이여들? 그게 우리 동네로 오는 것도 아니고 우찬물 너머 냉정리로 가는 것이라는 걸...”

다부진 체격에 누가 봐도 또렷또렷해 보이는 얼굴을 한 사내를 다른 일행들이 모두 바라보고, 사내는 말을 이어간다.

“정말로 다들 모르고 있었나들 보구만 그래? 그게 다 냉정리 박

영길 대감댁으로 가는 편진 줄 여태 정말 몰랐었구만들 그래? 그리고 그게 뭐 편지만 오나? 어쩔 땐 커다란 소포도 오고...”

이 년 전의 어느 장날이었다. 그 전날부터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 장이 열리겠나 의심하며 누구도 고개를 넘지 않던 날이었는데, 그날 그 새벽 그 비를 맞아가며 딱 한 사람이 그 고개를 넘어갔다. 그리고 그날 밤까지 어느 누구도 그 고개를 넘어오지 않았다. 그 밤에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빗소리가 하도 커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비에 그 고갯마루의 어느 생명도 맞서질 못 했었는지 그 새벽부터 그 밤까지 그 고갯마루엔 빗소리 말고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푸드덕거리는 소리가 한번 났던 것도 같은데, 그 소리가 새의 날갯짓 소리였는지 비에 꺾이는 소나무 가지의 비명이었는지는 그렇게 많은 빗방울이 있었어도 그 중 어느 빗방울도 그 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했다. 정말로 그런 소리가 났었는지도 모두 헛갈려했고. 확실한 것은 한 가지뿐이었다.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그렇게도 울어대던 소쩍새 소리가 그 밤이 후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다는 것뿐이다. (끝).

여행하는 책

명소희

1.

다시 눈을 떴을 때, 코 끝 가득 짙 바다내음이 났다.

그리고 가까운 가을 햇살이 나의 책장 위로 내려앉았다. 눈이 시리게 파란 하늘이 보였고, 규칙적으로 파도소리가 귓가에 와 닿았다. 굳은살이 단단하게 박힌 손가락들이 연신 나의 책장을 넘겼다. 옆에서는 아이가 ‘얼른, 다음, 또’ 등과 같은 말로 책장을 넘기기를 재촉했다. 한 장 한 장 나의 책장이 더 빠르게 넘어갔다.

‘마지막 기억이 무엇이더라...’

나는 다시 천천히 눈을 감고, 내 마지막 기억을 떠올려보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잘 생각나지 않았다. 아마도 이 뭉툭한 손길이 자꾸 내 책장을 재촉해 넘기는 탓이리라. 잠시 생각을 멈추어 다시 눈을 뜨기 전의 어떤 시간으로 나의 시간을 되짚으려 해도, 꼬마 녀석의 ‘빨리, 다음’이라는 재촉에 기억이 자꾸 달아나버렸다.

“자, 이제 끝!”

툭, 하고 마지막 책장이 끝이 났다. 다음 이야기를 재촉하던 아이는 내 마지막 장의 글귀를 다 듣고는 즐거움과 아쉬움이 뒤엉킨 ‘재밌다’ 한 마디를 내뱉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바닷가로 향하는 아이. 바다가 육지 멀리 도망가면 금방이라도 그곳에 빠질 듯이 한 달음 뒤쫓아 가다가 하얀 파도가 육지로 밀려오면 깔깔거



리며 뒷걸음질 쳤다. 파도와 술래잡기하며 깔깔거리는 아이의 웃음소리. 그 시간을 가만히 지켜보는 어느 젊은 부부와 나. 언제 여기로 온 것일까. 그리고 여기는 어디일까. 아주 잠깐 잠에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꽤 많은 시간을 흘러보내고 눈을 뜬 것 같았다. 기억을 되짚고, 시간을 거슬러도 까만 어둠뿐 기억나는 장면이 없었다. 뭐 이대로도 상관없나.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던 시간을 떠올리는 걸 그만두고 나는 가을 햇살에 내 몸을 맡겼다. 귓가를 간질이는 아이의 웃음소리와 시원한 파도소리. 그 소리를 따라 코 끝 가득 밀려오는 바다 냄새.

“선우야, 이제 가자.”

낮고 굵은,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다정함이 묻어난 목소리가 아이를 불렀다. 깔깔거리던 아이의 웃음이 푹, 그친다. 조금만 더... 아이가 나를 읽고 ‘재밌다’를 말할 때와 비슷한 어조로 말했다.

“다음에 또 오자.”

다시 한 번 다정한, 그러면서도 다소 단호한 목소리가 아이를 타 일렀다. 아이는 바다를 향해 ‘안녕’ 짧은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나도 바다에 인사를 건넸다.

안녕.



2.

며칠 나는 차에서 지냈다. 간간이 아이와 젊은 부부를 차에서 만났지만, 그들이 나의 책장을 펼치는 일은 없었다. 사실 조금 편했다. 이상하게도 나는 그렇게 누군가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이 더 좋았다. 책장이 펼쳐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나의 시간은 자꾸 멈추는 기분이었다. 내가 세상 밖으로 나온 이유는 누군가의 생각을,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혹은 못한다면 사실 나의 가치는...없다.

“이 책은 그림이 좋아.”

차에 탄 아이가 갑자기 나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는 나의 책장을 하나하나 넘겼다. 그리고는 아이는 내 책장에 그려진 그림들을 보며, 이야기를 만들어갔다.

“나는 한글을 잘 모르니까, 내가 기억나는 대로 말할 거야.”

아이는 내가 모르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 몸 위에 문신처럼 새겨진 언어에서 해방되는 기분이었다. 아이의 어떤 문장은 아무런 뜻을 가지지 않았지만 나는 그 이야기가 참 즐거웠다. 이야기를 조잘거리는 내내 아이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는



비가 내렸다. 아이의 목소리와 빗소리가 어우러져 좋은 소리를 냈다.

아...

이제야 마지막 기억이 떠오른다.

3.

그날은 비가 왔다. 먼지가 가득 쌓인 책장으로 목장갑을 낀 손들이 불쑥불쑥 쑤시고 들어왔다.

“읽지도 않을 책은 뭇 하러 이렇게 사 모았나 몰라.”

머리가 희끗한 여성이 책장의 책들을 쌓아올려 노끈으로 질끈 묶으며 투덜거렸다. 아주 책이라면 지긋지긋하다는 듯 그녀는 내내 인상을 쓰고 있었다. 책들을 끈으로 묶는 그녀의 손길이 야무졌다. 책장에 꽂혀 있던 때처럼 우리는 서로 흠어지지 않고, 종이를 부대끼며 서있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 어떤 책들은 새로운 책장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어떤 책들은 다시 서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그들의 이야기에 나는 몇 번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나는 딱히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았다. 이 집의 나무 책장은 내가 좋아하는 냄새를 가지고 있었다. 이상하게 나

의 고향에 와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냄새였다. 가끔 비가 오고 눅눅할 날에는 책장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였는데, 난 그 소리도 좋았다. 다른 책들은 책장을 향해 투덜거렸지만 책장은 ‘허허허, 내가 연식이 좀 있어서...’라며 웃어넘겼다. 책장의 그런 무뎀함도 나는 참 좋아했다. 그런데 불쑥 젊은 남자들이 책장이며 집에 있는 물건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책장의 주인이었던 노부부는 그 날 밤새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며칠 후, 우리는 책장 밖으로 나와 노끈에 묶여 대문 앞에 놓여있는 신세가 되었다.

“짐은 이게 다예요?”

젊은 남자가 하얀 트럭에 실린 짐들을 정리하며 노부부에게 말을 건넸다. 노부부는 ‘네.’ 짧게 말하고, 한참을 대문 어귀를 서성였다. 머리가 희끗한, 말은 쌀쌀맞아도 손끝은 참 야무지고 따뜻했던 안주인이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그래도 참... 잘 살았다.”

안주인의 말에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바깥양반도 헛기침을 했다. 나도 덩달아 목올대가 따끔거렸다. 끼익- 쿵. 녹슨 대문이 닫히고, 노부부는 그대로 트럭에 몸을 실었다. 나도, 다른 책들도 직감했다. 우린 저 작은 트럭에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트럭이 점점 멀어져갔다. 잠시 후, 내 몸 위로 빗방울이 하나씩 떨어졌다. 빗방울이 순식간에 굵어졌고, 그렇게 천천히 눈을 감았던 것이 내 마지막 기억이었다.

4.

“이 책은 그럼 어디로 또 가는 거야?”

나를 쥔 아이의 손끝에 힘이 실렸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와 헤어지기 싫어하는 아이의 마음이 느껴졌다. 아이의 엄마는 아이의 머리를 넘겨주며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이 책은 이제 다시 서점으로 갈 거야. 원래 책이 있던 곳이야.”

“책은 거기가 집이야?”

“그건 모르겠지만... 아마도 당분간은 이 책의 집은 거기야.”

아이가 천천히 손에 힘을 풀었다. 그리고 작은 박스 안에 나를 넣었다. 노란 편지봉투도 함께. 박스 문이 닫히며 아이가 인사한다.

“고마웠어. 책아 안녕. 또 만나.”

천천히 얼굴 위로 내려앉던 빛이 닫힌다. 안녕.

.
. .
. .
. .
. .

다시 눈을 떴을 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깔깔거리는 웃음소리. 반가운 듯 나를 꼭 쥔 손의 힘. 모든 것이 낯익은 곳. 아이는 날 향해 웃으며 말했다.

“안녕, 다시 만나서 반가워!”



원고모집 정릉야책

원고 형식 자유 에세이
단편소설, 시(동시)

원고 분량 A4 1.5매~2매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180%

참여 대상 성북구 주민
어린이, 청소년 작품도
환영합니다.

보낼 곳 eyts777@gmail.com



*정릉야책은 정릉 주민이 만드는
마을잡지로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지원으로 발행됩니다. 원고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정릉야책

정릉야책 6호

펴낸날 2020년 12월 15일

편집위원 김가희 김정훈 김해경 문지원 이연수 이해성 차정미 홍승완
디자인 차정미

펴낸곳 호박이닝쿨딩쿨
기획/편집 호박이닝쿨딩쿨 편집위원회
지원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호박이닝쿨딩쿨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445-3



시시콜콜

스샷스샷

오롱오롱1

어느날 정릉 아리랑시장의
한 야채 가게가
책방이 되고
매주 파리가 열리고
사람들이 모이고
자꾸 동네에서 재미있는 일을
벌이고 싶어진다.
그렇게 정릉야책은 동네에서
재미와 의미를 찾아나선다.

